朝鮮日報 夕刊

共同戰線堅持코 一方的行動排擊

獨逸海軍再軍備에 對한 三國代表意見一致

【羅馬一日發聯合】羅馬駐箚佛國大使 두·샹브랑伯 英國大使 드라몬드氏는 一日午前 外務省을 訪問하고 獨逸政府의 海軍復興策에 關하야 스비치外務次官과 重要會見을 遂하엿다 右會談의 結果

一、英、佛、伊三國政府는 스트레자會議의 決定에 基하야 끗까지 共同戰線을 堅持하고 歐羅巴의 平和를 危殆에 陷케하려는 一方的行動을 排擊할것

一、但 伊太利代表는 決然 獨逸政府의 海軍整備에 同意하지안코 專히 英國政府의 行動에 따라 全般的 支持를與하기로 意見이 一致하엿다

對獨策强調의 英國重要閣議

【倫敦一日發聯合】英國政府는 一日午前 다우닝十番地 首相官邸에서 重要閣議를開하고 맥도날드首相 司會下에 獨逸政府의海軍復興計畫對策에對하야 協議하엿다 그結果 明二日 下院의國防討議에際하야 英國政府는 外交의 國防政策을 宣明하고 特히 如左한內容의 處置를 强調하기로 決定하엿다

一、英國政府는 끗까지 平和政策을 堅持하고 時局의 圓滿處理를期하나 獨逸政府가 陸海空三軍에亘한 軍備擴張에狂奔하는以上 英國政府는 國防上 必要한 措置를 講究할方針이다

一、獨逸政府가 베르사이유條約을 無視하고 潛水艦建造에着手한것은 참으로 遺憾이다 如斯한 事實이 判明된 結果英獨兩國政府間에 豫定된 海軍會談은 새로운 視角에서 再次 檢討되지안흐면 안된다

下院의 國防問題討議에는 싸이먼外相, 맥도날드首相, 볼드윈樞相도 參加할것으로보인다

獨逸建艦着手에 英、現勢不足痛感

倫敦條約二十一條를發動?

日米兩國에通告中

【倫敦廿九日發電】獨逸政府가空軍擴充計畫에 繼續하야 潛水艦十二隻 建造에 着手하엿다는報道에 重大衝擊을 바든 英國政府는 廿九日 緊急閣議를 開하고 이對策에 對하야 愼重考究中인데 英國海軍當局은 獨逸海軍의 再軍備는 英國의 國防을 極度로 不安케하기때문에 如斯한 事態發生에 備하려고 規定한 倫敦條約 第廿一條를 發動할수밧게 업시되엇다고 보고잇다 即 英國政府는 倫敦條約에 限定된 保有最大限度量을 獨逸海軍의 새로히 保有하려는 艦船噸數에 應하야 增大하는것이 緊要하다는것을 日米兩國政府에 通告하려는것으로 英國政府로서는 英國本國艦隊는 獨逸海軍總勢力보다 훨신 强大하여야만 하겟다고 主張하고잇다

備考 倫敦條約 第廿一條의 要旨는 條約有效期間中 締約國이 締約國以外의 어떤國家의 新艦建造에 依하야 國防上重大한 影響을 밧덧다고 認定한 境遇에는 各締約國은 他締約國에 通告하고 理由를 明示하야 自國艦船中의 一 又는 二以上에서 艦數의 增加를할 權利를 有한다 右結果로 本條約中의 他締約國은 右明示된 一艦種 又는 數艦種을比例的으로 增加할 權利를 가지게될것이오 右에 依하야生한 事態에 關하야 締約國은 外交的手段에 依하야 互相早速히 協議할것

鳥人못솔리니

伊國首相못솔리니氏가 去月十一日부터 스트레자에開催되엿던 英佛伊三國會議에 自己自手로 飛行機를 操縱하여갓다함은 當時에 이미 報道한바어니와 인제 그操縱光景이 吾人의手中에 들어왓다 못솔리니가 現代怪傑中의 한사람임은 누구나 잘아는바어니와 그는 政治的意味에서뿐만안이라 스포-츠에잇서서도 亦然하다 東洋政治家中에는 自手로 自動車運轉하는 사람조차 發見하기 어려울뿐안이라 「에스피-드·파이롯」의 손으로 操縱되는 飛行機의 搭乘조차 怯을먹고 躊躇하는者가 만흔今日에 한돌에 大臣職 어덧어나 짐머진 責任에업는 貴한몸(?)으로 暴風雨를 무릅쓰고 알패-니스險山을翔破한 鳥人못솔리니氏를 無限的 好漢男兒라할가? 自信이 구든 勇敢한 怪傑이라할가? 못솔리니氏가 모-르리스트요 有名한乘馬客이라함은 世人이 熱知하는바이지마는 그가 非凡한 飛行士라는 事實은 이番 機會에 비로소 全世界에 알녀지게되엿다

話題解說 公認宗教現勢

◇

現在朝鮮에는 여러가지信仰을 主體로한 各種의宗敎가잇다。佛敎、예수敎는勿論 天道敎、侍天敎、太乙敎、白白敎等敎、實로 그일홈을 주서섬기에도 겨를이업슬지경이다。그러나 當局이 宗敎라하야公認하는宗敎는佛敎、예수敎와神道의 세가지밧게업다。勿論儒敎도公認하는宗敎의하나이지만은 儒敎는特別히布敎規則이업고 鄕校와儒林에依하야 그思想과儀禮를傳할뿐임으로 公認宗敎로서 一律로말하기는 어렵다。

◇

現在公認宗敎의情況을보면(一) 佛敎는 明治四十四年寺刹令施行에依하야 傳統布敎를그活動을公認바든後 禪宗兩派의三十一本山이 聯合出資하야 財團法人朝鮮佛敎中央敎務院을 만들어가지고 布敎와敎勢擴張에努力中인데 現在의狀況은 本山三十一、末寺一千三百七、布敎所百四十七、僧侶五千七百十二人、尼僧一千八十七、信徒十二萬八千餘이라고한다。(二)예수敎는 各派敎會가盛히敎勢하야外國人關係로는 朝鮮耶蘇敎長老會、監理會、聖公會、東洋宣敎會、救世軍、安息日耶蘇再臨敎、基督敎會의 七派가잇고 日本人側은 소지스트敎會、日本組合敎會等이잇스며 朝鮮人側으로는 大正七年에 元長老敎派의 牧師金庄鎭氏가 黃海道에서 朝鮮基督敎會를 組織하엿다。以上新舊各敎會를 通하야 現在 布敎所四千二百六十九、布敎者二千六百四十七、內外宣敎師四百四十四、信徒朝鮮人四十一萬四千六百餘、日本內地人七千六百餘、外國人三百餘、合計四十二萬二千五百餘人이다。

◇

神道도派가 만하서 天理敎、神理敎、金光敎等 十派나되며 信徒八萬二千中 朝鮮人이 一萬五千八百餘人이오, 其他日本佛敎各派에도 朝鮮人 信徒가 八千二百餘人이라고한다。

空軍擴張費로 五百萬磅追加?

英政府下院에提出

【倫敦一日發聯合】英國政府는空軍擴張費로서 새로 五百萬磅의 追加豫算案을 下院에 提出하지나 안흘가 觀測된다

따늠會議 六月三日開催

【電通倫敦一日發】英國政府公表 다늠會議는 六月三日 羅馬에서 開催하기로決定하엿다

英政府、空軍常備 急速强行을決定

極東軍備情勢를偵査한結果

擴張되는英國空軍

【倫敦一日發聯合】英國政府는極東軍備情勢偵査의結果 如左히空軍常備를 急速히强行하기로決定하엿다 右範圍는 明白치안으나 새로空軍二個中隊를 增加하기로決定하고 五個中隊를常備하는外 다시補充飛行隊를 常設할方針이라고確聞한다

英佛對策協議

【倫敦一日發聯合】佛國代表 피에드리海相은 一日午後 英國下院에서 싸이먼外相과 會談時餘에 及하엿다 獨逸政府의 潛水艦問題에 關하야 싸이먼外相이 歷歷 英、佛、伊三國의 共同動作을 主張하고잇는 事實이 잇서 피에드리代表와의 사이에重要對策을協議한것으로 解釋된다

佐藤駐佛大使 佛外相과重要會談

【巴里一日發聯合】佐藤駐佛大使는 一日午前 佛國外務省에 라발外相을 訪問하고 重要會談을 遂하엿다 會談의 內容은 不明하나 獨逸의 潛水艦問題가 話題에 오른것으로 解釋된다

佛蘇協約假調印 來四日까지延期

未解決點을折衝할次

【電通巴里一日發】佛蘇協約草案에對하야 라발佛外相, 포쫌킨駐佛蘇聯大使는 一日夜 約四時間에 亘하야 協議를 遂하엿는데 아직 完全한 同意를 보지못하야 今明日中에 假調印을 할豫定이던바 다시 來四日까지 三日間 延期하야 幾存未解決點의 折衝을 繼續하기로 되엇다 午後十一時 佛國駐在 蘇聯代表는 右에 關하야 如左히 말하엿다

佛蘇協約假調印은 四日까지延期하기로되엇다 大部分의 協定案은 作成되엇스나 좀더協議를 要할 點이 단하나 殘存해잇기 때문이다

會見을要求하면 軍部는即時應諾

政民聯携委員에對해

【東京電話聯合】政民聯携委員은 三十日第二回會合에서 軍部首腦部를訪問, 國策樹立問題를 中心으로 意見交換을行하기로 決定하얏는데 軍部가如何한 態度로써이것을 迎할는지자못 注目되는바 陸軍首腦部는 右에對하야 陸軍大臣은 國務大臣으로서 어떠한사람과 會見해도 相關업는일이다 그러나特히 政民聯携委員이므로 會見치안흐면안될理由는업스므로 政黨方面의 사람들이交渉議하고십단理由로 會見을要請하면 이에應하는것을실혀하지안는다 그리고 次官、軍務局長과如何하이도 事務官이므로그러한席에 出席하야 事務的說明을하는것은 相關업다는 意向으로陸相도 聯携委員으로부터 會見要請이잇스면 會見에應할것이라고보이는데 陸相과의會見推移는자못 注目할만하다

歐洲新情勢에關해 英自治領首相等協議

【倫敦一日發聯合】맥도날드首相 싸이먼外相은 二日午後 下院에서 加奈陀、南阿、濠洲、各自治領首相과 會見하고 獨逸政府의 再軍備에 基한 歐洲의新情勢에 對하야 逐一經過를 報告하고協議를 遂하엿다

0042?0

히틀러總統 平和維持를高唱

國民勞働祭日에

【電通伯林一日發】히틀러總統은 一日 國民勞働祭에 當하야 템펠호프飛行場에 出現하야 六十萬大衆 압헤서 如左히 約二十六分間에 亘하야 獅子吼하고全國民이 一致團結하야 平和確保에 貢獻할 必要가 잇다고 高唱하엿다

政治家는 壓迫 力을 軍備에만 드리고 國民의 理想信念에 期待하는것을 忘却하고잇다 吾人은 戰爭을 希望하는者가 아니다 吾人은 國民의 平和를 回復한것과가티 世界의 平和도 回復하는것을 希望하는者이다 政府는 國民이 가진 名譽를 抛棄하는 者가 아니오 同時에 他國間에 獨逸國家의 名譽를 抛棄하는者도 아니다 他國은 昨日의 獨逸이 아니오 今日의 獨逸을 理解하여야 할것이다 獨逸은 … 二百年의 歷史를 有한 … 는 吾人에게 … 자랑을 … 者이다

北鐵代償半額으로 外蒙에大鐵道網

技術者를秘密히現地에派遣調査

蘇聯邦의注目할意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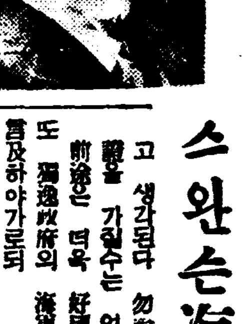
【齊齊哈爾一日發聯合】滿洲國赤化에 失敗한 蘇聯邦은 外蒙을 手中에너허가지고 軍備其他에對하야 直接政策을 策하고잇는데 一日 當地某所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압서 讓渡한 北鐵의代償金의太半을 秘密히外蒙新鐵道敷設資金으로 投下하려고 過般 中央部로부터 技術者를 現地에 派遣하야 測量 其他 準備를거듭하고잇다고한다 그리고 右鐵道建設計畫의 內容은 大要如左하다

一、復線工事中의 鐵道를타이스카야鐵道、노보시비리스크、세미파라친스크、안마타에 至하는 二千七百키로 其他 西細亞鐵道의 타시켄、오렌브르그間 二千六十九키로

一、新規建設 準備中의것 벨프네친스크、우르카에 至하는 九百키로 세미파라친스크、라이산스크間 七百키로 세르기오포리、추브차크間 四百키로 이린、나르겐도크、리자間 四百五十키로、우리야스나야間 二千키로 로서 全延長 實로 九千二百十九키로라는 尨大한 敷設計畫이다

建艦既定費 上院에서復活?

스완슨海軍長官豫言



【華盛頓一日發聯合】스완슨海軍長官은 三十日午後新聞記者와의 定例會見에서 上院이建艦既定費를復活할것이라는것을 豫言하고如左히述하엿다

下院이 豫算委員會의 決定에 基하야 來年度 海軍豫算中二十四隻建艦既定費에 一大斧鉞을 加하엿는데 上院에서는建艦既定費 二千九百三十八萬弗은 豫算案대로 復活될것이라고 생각된다 勿論分明한 保證을 가질수는 업스나國家의 前途는 더욱 好望이다

또 獨逸政府의 海軍復興計畫에 言及하야가로되

獨逸은 이미 潛水艦建造에着手하엿다고 하는데 米國政府는如斯한 事實에는 조금도근심하지안는다 一九四二年까지에 華盛頓、倫敦兩條約 最高限度까지 海軍力을 充實할旣定方針에는 變함이업다

米空軍首腦部提案 루大統領이反駁

空軍根據地의急遽建設案

【電通華盛頓廿九日發】昨二十九日 前陸軍作戰部長이오 空軍의 權威인 힐번少將、米國空軍總司令 안드류스少將等이 米國陸軍航空首腦部로서 米國現下의 國際政局에 鑑하야 加奈陀國境 太平洋及 西印度方面에 强力한 空軍根據地를 急遽 建設하라는旨의 秘密報告를 下院陸軍委員會에 提出한데 對하야 루즈벨트大統領은 今日下院委員會 박쇠委員長에게 如左한 一書를 寄하야 米國의 平和外交政策을 繼續强調하고 右兩將等의 提言을 痛烈히 反駁하엿다

힐번、안드류스兩將軍의提言은 米國政府의意向이아니오또米國陸軍의政策을 表明하는것이아니오 米國政府의目的、動機를 反하는것도아니다 米國政府는 그如何한 計畫政策에 잇서서도 米國과 他의諸外國間의 友好關係에 變化를 生하는일이잇스리라고는 假定하지 안는다 米國과 加奈陀國境의 軍備를 永久히 撤廢하는것이 야말로米國政府의 政策의根本基調이다

따늠諸國會議에 匈國條件付參加

【부다페스트廿九日發聯合】匈牙利政府는 伊太利의 다뉴브不干涉協定 引入運動에는 極力 警戒의 態度를 가지고 他方 墺太利 獨立保障條約에 對해서는 白國의 主張이 受諾되는限 參加하기를 싫어하는바 아니라는 旨의 意向을 示하고 五月四日 베네치아에서 開會될 匈、墺、伊三國豫備會議에 對한 自國의 主張에 對하야 廿九日 非公式으로 如何히 言明하고 다늠會議參加의 先決條件이란 旨를 明白히 하엿다

一、트리아논條約 其他 現行條約의 改訂原則을 承認할것, 條約改訂을 爲한 行動은 不干涉條約의 違反이라고 指目하지안흘것

一、少數民族의 權利를 明確히規定할것, 少數民族의 權利主張에 關한 行動은 不干涉條項의違反이라고 指目하지안흘것

一、따늠不干涉協約 調印에압서現在의 軍事條項을 改善할것

蔣介石氏近近 療養次南京歸還

貴陽風土病으로呻吟

【廣東二十九日發電】二十九日午後廣東에잇는 王家烈의 第二十五軍 辦事處에入한 貴州省貴陽에서온 情報에依하면 蔣介石氏는 積年의 過勞에다 貴陽의風土病에걸리어서 連日 惡感에걸리고 류마치스로相當히 憂慮할狀態에잇스므로 來月二、三日頃에 飛行機로 南京에 還하야 轉地療養할豫定으로 貴州의 指揮軍事는 薛岳氏에게 委任하리라고한다

그리고 陳誠、吳稚暉、陳布雷等 蔣介石氏近側要人은 蔣介石氏의 招電에 依하야 二十八日 重慶으로부터 飛行機로 貴陽에飛來하엿는데 右는 蔣氏의 身病惡化에 依한 善後措處에對하야 重要協議를行하기爲한 때문이라고한다

都市와農村對立

그 現狀과 動向에 對한 一考察

⑤ 朴用來

都市와農村의結合的傾向

以上에서우리는 모든資本主義國家에서그러한것과가티 朝鮮에잇서서도 都市에依한農村搾取는進行되어 한便에잇서서는 農村의疲弊에拍車를加하고 다른便에잇서서는 都市의繁榮을促進하고잇슴을보앗다 그러면 이矛盾은어떠한方策으로打開될것인가 모름지이 農民의覺醒이必要할지니 當面의問題로는 農村疲弊의根本的原因이되는 不公正한交換關係에對하야서는協同組合運動이잇고 過小農制와過重한小作料關係에對하야서는 農民組合運動이잇다 그러나 이러한運動은現制度下에서는 스스로限界가잇슬지니 이에依하야農民經濟의根本的打開또는 都市에依한農村搾取의 徹底的排除를期待할수는업다

그런데 最近農村工業化라는것이 巷間에서論議되고잇다 이問題에對하야서는 이미本報를通하야論述한바잇슴으로 여긔서도다시詳論치안커니와 이는朝鮮에서라기보다는 日本內地에서熱烈히 唱道되고잇는바 大體두가지로 나누어볼수잇다 하나는 農村의 自主的工業에依한 農村工業化論인데 副業的意味를 가진것으로 貧農이 이餘裕를입기에는 너무도 그 資力이 缺乏하고 都市製造業者와의 競爭又는 大資本의進出로 農村救濟에 얼마나한效果를내일는지 極히疑問이다 또하나는 都市工業의 農村分散에依한 農村工業化論인데 農村의低廉한 勞働力을 利用하야 工業利潤을 追求하려는純資本主義的 慾求를 代表한것으로 農民의 低賃金勞働을强行하며 農村勞働力의 吸收에 依한 農業의 衰退조차務하게될것이다 그러나 이農村工業化論은 農業과工業 따라農村과都市의 關係에잇서서 新史的動向에 沿한것이니만치 看過할수업는일이다 무릇 人類社會生活의 歷史的 發展過程을보건대 農業과工業의融合過程인原始的村落經濟에서 手工業의分離를따라經濟的都市의誕生을보앗고 한거름더나아가資本主義的大工業의 發達을따라 農業과工業、農村과都市의分離對立은 現今그極에達하얏다 그러면이아프로進行할 過程은엇더한가하면 農業과工業、農村과都市의 再結合過程일것이다 그런데이는 單只理論뿐이안이요 實際朝鮮에잇서서도 한便에는 農業의工業化傾向 다른便에는 工業의 地方分散傾向을 볼수잇다 前者에잇서서는 製繩、織叺、竹工、羊毛加工等農産物을原料로하는 農民의工業的副業의 獎勵普及에伴하야 그共同作業場의 設置를보며 後者에잇서서는 生産技術의進步、交通機關의 發達을따라原料又는動力을 엇기에便利한 地方으로 工業이分散하야가려는氣運이 濃厚하며散從하나마 現在이미그萌芽를 볼수잇다 그러나이結合過程이아프로더욱進展할것은事實이나 現在의狀態下에서는 여러가지障碍가잇슴을 이저서는안될것이다 그럼으로 農業과工業 따라農村과都市의混然한融合에는 一定한條件이必要할지니 이는要컨대 未來의 社會에約束된課題이다 그러면 다음에 이러한融合狀態에對한 「카우즈키」의見解를드러參考에供하고擱筆하고자한다

『工業과農業과의 適當한結合形態를經驗에依하야 發見함이 新制度의任務로될것이다 이結合形態下에잇서서는 工業은 田園에 移植되고 農業經營은工業勞働者에게食料及 原料를供給하게될뿐더러 工業勞働者는 農業이非常히多忙한時期 特히收穫期等에는 有効히이에 共働할수가잇고도 農業勞働者는農業이閑暇한時期特히 冬期에는工業에精進從事할수잇도록 모든 勞働者가 敎育되며 組織될것이다 一層더高度인 農工業의結合形態下에서는 各勞働者는每日數時間을農場에서 數時間은 工場에서일하야 勞働과肉體를 損傷하는一方的勞働의單調를止揚할수잇서勞働者의健康과勞働의喜悅은 確實히늘날만치 增大하게될것이다…他方에잇서서 都市制度는 全然업서지지는안흘것이다 都市는 國家行政機關及高級敎育의 中心地로서存在를 繼續할것이다 그러나 國家官僚組織의 減縮과地方自治의 伸張에伴하야 中心都市의 官吏의數가 減少하는同時에 工業의分散이 益益計劃的으로 組織되고 또益益市場의景氣로부터 獨立하며 이에加하야 田園의交通機關이益益發達함을따라 더욱工業이地方的으로 分散되게됨으로 그結果國家의 中心都市는 約十萬의人口를 가짐으로써 足하게될것이다 他方에잇서서農村은 工業의田園分散에 依하야 小都市로 發達하게될것이다』이러한 社會가出現하게되면 그때야비로소 農村과 都市의對立은 眞實로止揚되어 今日의 그跛行的發展은 均衡을엇게될것이다 (完)

八面鋒

【滿洲】區隊가 도나오다、洪同知도나오고 朴僉知도나오고、초라니도나오나라。

◇

바다가 宮室理致는 惠無하나 軍艦으로써 五大洋을 뒤덥는다면 陸地의不足도緩和될것。

◇

非常時의對外工作에는 運營을統制하야 金務라고 廣田外相이 地方官에게 訓示。

◇

「禍는口舌로부터」에서「禍는舌底로부터」를 막자는用意인가 짐작되나 注文대로되기는 極難할일。

◇

一木樞相의 突然辭意로 政府가 地震이나 맛난드시 떨고야단。

◇

憲法學說의 餘震이라하면 安全感을엇기도 容易치아니할일 大月도 되기前에 東京政界는 新天震動。

人事·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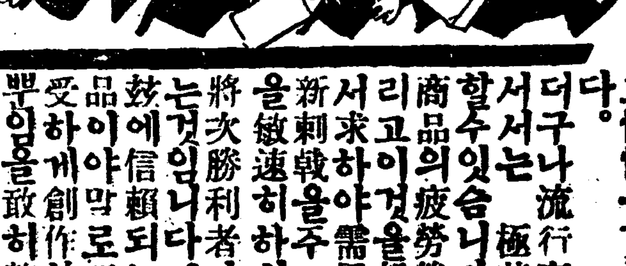
▲金洪泰氏(醫師)京城府議員立候補人事次二日來社

▲姜樂遠氏(延專敎授)今般京都에서開催되는劍道高段者大會出席次로二日午後十時五分京城發

本紙號外發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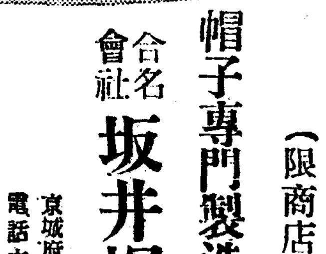
八尾島近海砂利船遭難事件에關하야二日再錄號外를發行하엿습니다

販賣率을增大케하는 優秀品을求하시라면!



더욱조코더욱새로운것은누구나바라고잇고憧憬을갓는것입니다。더구나流行商品에잇서서는 極甚하다고할수잇습니다。그前商品의疲勞倦怠를버리고이것을新商品에서求하야需用者에게新刺戟을주고販賣率을敏速히하신다함은將次勝利者가될수잇는것입니다。玆에信賴되는弊店製品이야말로明敏히感受하게創作한優秀品뿐임을敢히贊言하며多少를不拘하고貴下命을바라고잇는바입니다。

(限商店目錄進呈)



帽子專門製造都賣商

合名會社 坂井帽子店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 電話本局三七六〇番 振替京城八六八一番

工場 京城府北米倉町九〇 電話本局一七五三番

사랑은품파리단

金銀價買

大邱中央通 大邱金銀商會 電話一三六七

京城鍾路二丁目 完全時計修理 普信堂時計舖

創立明治參拾貳年 倉庫業兼營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十一番地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頭取 朴榮喆 專務取締役 堀正一

支店 京城南大門通、同鍾路、同東大門、同本町二丁目、同本町四丁目、龍山、仁川、平壤、鎭南浦、海州、群山、全州、裡里、長興、康津、釜山、元山、永興、咸興、端川、淸津、羅南、會寧、沙里院、信川、新義州、定州

京城 金 地金銀分析賣買 合資會社 杉山商會

高價買

京城明治町 合資會社 杉山商會 電話本局七四〇番

內科 チストマ 十二指腸虫 痔科專門

京城金弘瑄內科醫院

總督府前 電話光三一三 振替京城五七貳貳番

◎官廳銀行會社商店就職紹介·畢業後新學期開始五月十三日(第二部申組)

第四五回生徒募集 實踐簿記專修學院

◎學則要二錢切手 校舍大振張新地六百有餘坪及運動場千五百有餘坪 마음대로運動하게됨 京城黃金町六ノ二三(電本二一六〇)

◇軟綠

圖們線列車被襲 乘客等多數死傷

乘務員七名은即死旅客은重傷

列車는不得已休運

【電通間島二日發至急報】이일오전두시도문(圖們)으로부터 신경(新京)으로 가는렬차가 남구(南溝)대석두(大石頭) 사이를 진행하는동안돌연삼백여명의 도비단에게 습격되야 긔관수하명과 경승병(警乘兵)다섯명과 경무다원한명이즉사한외에승객다수가부상되엿다 급보를 밧고간도각지로부터일만군경이급거출동하엿는데 아직자세한소식은 알수업다 이때문에 이일돈화(敦化)로 가는렬차는운전을중지하엿다

【電通間島二日發至急報】경도선(京圖線)렬차 습격사건에 관한 입보에 의하면 승객피해자는 승객십사명이 중경상을입엇는외에 좌등(佐藤)순장(巡長)이 한명즛상되고 차장한명이 부잡혀갓다

八尾島近海에서 砂利船六隻遭難

七隻三十五名中六名만生還 二十九名行方不明

【仁川支局電話】부천군덕적면승봉리(富川郡德積面昇鳳里)박유봉(朴允奉)외여섯명의 소유인석하수용의 백오십석의 조선목선일곱척에 선부삼십오명이 타고 지난이십구일 정오경에 그곳을떠나서 서산군황도면(瑞山郡黃島面)에가서 자갈을만재하고 인천으로도라오든길에 그날오후아홉시경에인천항외팔미도(八尾島)부근에서돌연강풍을맛나 그중의일척 만무사히 도라오고민화봉(閔化奉)의 배에 다섯척은전복되고 과련다 이일아츰에야 조난한 선부중민근춘(閔根春)이가 전복된배중에서 구사일생으로 인천해안에표착하야 비로소사건이알려저서 급보를받은 인천경찰서에서는 곳연안각지에 수배한결과 일일오후다섯시경에 부천군문학면문학리(文鶴里)해안에 림용봉의시체가 표착되엿고선체와나머지 이십륙명의행방은 의연히분명치 못하나 아직까지도소식이 업는것으로 보아서 모다절망인것으로 추측되고잇다한다

인천서에서는 한편으로 경비선비척을 조난현장에 급히파견하야 행방불명의시체를 수사하는중이다 행방불명이된선부들의 일홈은 아래와갓다

閔化元 黃泰秀 張致玉 金朝漢 張相順 姜吉求 鄭順文 黃同順 沈鐵洙 沈明洙 黃學順 姜德雲 姜昌俊 金銀明 申相民 姜昌宗 金同安 黃奉元 金昌德 黃長基 裵貴根 裵貫尼 裵行求 申錫圭 張甫順

阿片中毒者利用 軍事機密探偵說

朝鮮及滿洲人多數動員식엿다고

北朝鮮國境을嚴戒中

모처에온 정보에의하면 최근모국 계통(系統)인 아편을 다수휴대하고 만주인과 조선인 중독자를리용하야 북만동부지방과 북조선지방의 군사긔밀을 탐정하려는계획이라는데 이계획은 경성 모방면과도 련락이 잇다는말이잇서 관계당국에서는 이정보에 의하야국경의경계를 엄중히하는 동시에 그계획에대한내사(內査)를엄밀히하고잇다한다

勤續校長表彰

【三陟】 천진란만한 어린학동들을 다리고 십개성상을 하로와가티 지도애힌 … 씨은 무안군(務安郡) 삼향보교장 도변(渡邊)씨를 긔렴키위하야 동교학무위원제씨의 불유의 로력으로지난사월이십구일에동교강당에서표창식을거행하엿는데면내유지와및 다수학부형의 참석으로대성황을 이루엇스며 순금회중시계한개를 긔념품으로 징정하엿다한다

身元不明한 女人이投水

이일오전여덜시반경에 시흥군 북면흑석리(始興郡北面黑石里)한강신사압헤서 어떤녀자하나이 물로뛰어 가는것을발견한 동면동작리(銅雀里)선부김선영(金善永)이 곳구조에노력하엿스나 미처건지지못하고 약한시간 가량후에건저인공호흡을 식히는일방 물붇피워몸을 더웁게하엿스나 결국소생되지못하고 절명되엿는데 그는나이 약사십세가량된 조선녀자로서주소성명은알수업다 한다

◇手荒二件

백화점절도이건—일일오전 열시반경에 시내 본정(本町)삼월(三越) 백화점 일층매장에서 『안다샤스』(內服)를훔치다가 본정서원에게체포된자가잇는데 그는전북 전주군상관면대성리(全州郡上關面大聖里)사는 리봉삼(李奉三)이란 식골사람이며 시내어성정(御成町)구십팔번지 김판출(金判出)—假名—이란 소년은 일일오후 세시경에본정삼월(三越)백화점 삼층매장에서『밴드』(革帶)한개를 훔치다가 본정서원에게 발견체포 되엿다

大同江岸에 陸軍機墜落

이일오전여덜시십분경에 륙군비행긔구삼(九三)식상십호는 대동강(大同江)동안상류의논에추락되야 파손되엿는데 탑승자두명은 … 빵이오괴적으로생명에는이상이업섯다 원인은 공중을활주하야비행장에착륙하려할때에 대동교(大同橋) … 제일가드에 괴체을부다치게되엿슴으로 이를 피하려다가 마침내추락된것이라한다

勞動祭警戒에 窃盜가걸려

【元山】오월일일메-데-를경계키위하야 원산서에서는 시내요소요소에다 비상경계망을느리고 잇섯는데 메-데-전일인 지난삼십일아참칠시경에는 원산해안통 룡정목권수테상점부근을경계하고잇든 … (金濃昭)순사가약륙십가량되어보이는 로동자가큰상자를지고 공설시장으로부터 나와서 상동(上洞)방면으로 가는것을 불심심문하얏던바 그자는 상자를 버서버리고 곳 도망을하므로 따러가서 체포코저할때에 그범인은 가젓든쇠망치로전긔 전순사의 두부를란타하얏스나 추격하야 일대격투를한후 겨우 체포하얏다는데 그범인은 본적을평북 희천(熙川)에두고 일정한주소가업시 떠도는 오룡인(吳龍仁)이라는바동서에서는방금 엄중취조중이라는데 그는전긔공설시장에서 과물과 계란을절취해가지고가다가 그만 메-데-비상경계망에걸린것이라고 하는바 전긔 전순사는 전치삼주일간을 요할상처를입엇다고한다

"브룩크"法則딸아 年形打診新試驗

觀測所의珍研究

【仁川】근년에조선의긔후가 이상스럽게도차차변화함을 총독부관측소(總督府觀測所)에서국부(國富)소장이 고심연구한결과 이는일즉이독일(獨逸)학자가발견한『부룩크』법측에의하야이러나는 변동이요일즉이과학계에서전하는홍점(紅點)과흑점(黑點)의신축으로 긔후가변동되는 것이아니라한다 그러나전긔『부룩크』법측이란삼십년내지사십년의주긔(週期)적으로변화되는긔후의고저표(高低表)로 일정한것임으로 이를준하야『오호즈크』해와류구(琉球)렬도근방의 난류(暖流) 한류(寒流)등을연구한결과 조선의긔후는겨울(冬)이더우면여름이서늘하고 겨울(冬)이추으면여름이더운전례를보아『부룩크』법측에적합한것을능히알수잇슬뿐아니라 동법측으로는능히당년의풍흉(豊凶)을짐작할수잇다 이에 국부소장은『부룩크』법측에의하야금월초순에조선미(米)의풍흉예상(豊凶豫想)발표를하리라는데과연동법측이금번도시현에적합하맛는다면장래조선의미작(米作)에 일대『센세이슌』을이르키리라하야 일반긔상학자들의가장주목하는바이라한다

醉中汲水타가 青年이落井慘死

市外阿峴里에變事

이일아참 부외 아현리(阿峴里)사백십륙번지 공동우물에 어떤사람이 빠저죽은것을 물길러온사람이 발견하고 곳조사해본결과 그는그곳 서천복(徐千福)으로 일일밤에 술을잔득먹고 물을먹으려고 물을뜨다가 잘못하야 빠저죽은것

農地令의 一部內容 今秋內改正計畫

地主逆用과各地方廳要望으로

實施後의實情을調査

총독부에서는 농지령을 실시한지 일주년이되는 금년십월말이나 십일월 초순까지에 농지령과그시행규측등의 일부를 개정할작정으로현행농지령실시의 결과를 자세히조사하며 농촌의소작관계가 농지령 실시이후 어떠케 변천되엿는지를재음미(再吟味)하게 되엿다한다 농지령이 실시 되기가 이미 반년이 되엿는데 농민의 보호를목적으로 제정되엿든법령은실시이후 그성적을보면 도리혀소작쟁의의격증과 지주가 역용(逆用)하야 억압하며 착취하는 폐단을 나흔것밧게업서서 농지령은 그후민간측의 개정요망이만흔것은 물론 지방당국자가 직접농지령을운용한 경험에의하야 그일부를개정할필요를 늣기게된것도 사실이라는것이다 그럼으로 일전에열리엇든지사회의에 잇서서도 거의각도가전부 이법령의 개정에대한희망을 하게되엿것이라는바 농림국에서는금년 십월말이나 십일월초에밋치도록 일부개정을위한 조사연구를거듭하야 현재농지령이 가진가장큰결함으로 지목되는 수개조문의개정을 단행할 작정이라한다

團員十一名의 純女子詐欺團

【仁川】의지할곳업는 늙은 과부 …

"廿四月"支拂期限한 僞造手形도有罪

滿期로써効力엇는手形去來에

高等法院의新判例

약속수형 만기기재란(滿期記載欄)에달력에업는「달」을 긔재하엿다할지라도 행사의목적으로써 형식상 다른사람으로하여금 유효한유가징권(有價證券)이라고 사료(思料)시킬수잇는 정도의것을 작성함으로써 유가징권 위조죄가성립되고 반드시유효한 형식을구비함을 요하는것이아니라는 판결이 이일고등법원에서 나려서 이런종류의재판사건에새판결을지게되는 동시에일반 지능범죄(知能犯罪) 사건에큰 충동을 이르키게되엿다 사건은 경남창녕군 길곡면증산리(昌寧郡吉谷面增山里) 리우선(李愚善)에관한 유가징권위조행사, 사기(詐欺)피고사건으로 그는그의처가인 경남울산군 울산읍우정동(蔚山邑牛亭洞) 박학근(朴學根)의집에가서 류련하든중작년일월 이십사일밤에 그의처남박학근이가 잠이기피드른틈을 타서박학근의 족끼안에서 박학근의인장을홈처내어가지고 자기가 지니고잇든 약속수형용지(約束手形用紙)에 액일만오천원, 진출인(振出人)박학근, 주소는울산군울산읍 우정동백삼십팔번지 이십일에 서울에 올라와서그수형지(紙)진출인서명(振出人署名)하는자리와 기타필요한자리에 날인을하야 그것을 가지고 그해 삼월 … 지불장소는경성부청산동 … 지불긔일은 소화구년「이십사월」(二十四月)사일이라고 긔재하야 박학근명의의 약속수형한벌을 위조완성해가지고 그해사월이십사일에 경성부내자동(內資洞)이십삼번지 김형진(金瑩鎭)에게가서 김형진의 소유인 경북경주군(慶州郡)소재 금광 … 을 대금일만오천원에 사게하야 그위조약속수형으로 대금을 치르고 그광산의 양도를 바더 불법으로 재산상리익을 취득하엿다는사실로 부산(釜山)지방법원에서징역십개월의 판결을밧고 불복공소하야 대구(大邱)복심법원에서역시 징역십개월의 판결을바덧든것이다 그것도 또불복하고 피고인의변호인 리우익(李愚益)변호사는—『약속수형의 요건인 만긔일(滿期日)은 달력에 정해잇는 년,월,일로써그것을표시함을요하는것이오 달력에정해잇지안는년,월,일로써 한 만긔일의 긔재는수형법상당연히 무효되는것이다 그러므로이사건 피고가 기재한「이십사월」이란것은소위 만긔의기재가 업는것이라고 하지안흘수업스므로 피고인에대하야 수형위조의범행이 잇다고할수업다』하야 무죄를주장하엿스나 고등법원에서는『형식상다른사람으로하여곰 유효한 유가징권이라고 생각할만한 정도의것을작성한것으로써 위조죄가 성립된다』하야 상고기각의판결을 내려결국 징역 십개월로 확정되엿다

乳藥 松の實キャラメル

天氣豫報

晴一時曇

優勢한低氣壓은 中國方面에잇고 高氣壓은 中國中部로부터 黃海에 擴大되며 蒙古方面은 氣壓이좋아졋다 南西岸과國境地方은 흐리고其他는 日氣가조타 沿岸은北風이强하고氣溫은 木浦의十度와中江鎭의三度間에잇다 明日은 日氣가조코바람이 弱해진다

昨日 最高 十四度九 今朝 最低 五度五 今日 正午 十四度五

北海大林을根據로 大量魔藥密賣團

樺太에서鶯粟栽培各地에供給

蜘蛛網가튼連絡網

지난번 만주국 황제폐하께서일본을 어방문하압섯슬때에 동경경시청 당국에서는 관내의대검색을하다가 우연히 남천주(南千住)오정목 칠십이번지 조선인밥장사지학대(池學大)의집에서 그집에묵고 잇는로동자 리문배(李文培)가『룩크삭크』속에『따이나마이트』열개와 뢰관(雷管)열세개와 도화선(導火線)삼십오척을 숨겨가지고 잇는것을 발견하고 그들은 김석승이가 화태원박촌(樺太元泊村)에 사는 전긔촌전의 형과 친한것을리용하야 김석승을 중심으로 동석, 상해(上海) 장곡 의부하인 최광갑(崔光甲)과 김석승(金錫崇)과최창호(崔蒼浩)등이 삼하도(三河島)모공장직공 촌전승청(村田勝淸)외 십수명이 공모하고 대규모의아편을밀수밀매 한것을알게되야 질풍적으로 가택을수색하야 리문배의집에서 유지에싼 아편이관(貫)을너은『추렁크』를 압수하고 련루자를검거취조중이다 (長崎)경도(京都)를 비롯하야 기타일본전국 중요도시에밀매망(密賣網)을거미줄가티느려노코 촌전은 반개년의량식을 미리가지고북해의 대삼림 화태진내정(樺太珍內町)산골수백리속에 몰래들어가집을짓고 앵속(鶯粟)을 재배하야 아편을 만드러가지고 포장(包裝)을교묘히하야 각지에 발송밀매한것이 판명되얏는데 이가튼주의주도한범죄는 별로히볼수업든 일이며『따이나마이트』는 어느공사장에서 고기를잡고자 절취한것이라한다

高等係員總出로 授業中學校掩襲

同盟休學(?)의機先을制하야

咸興警察突然活動

【咸興支局電話】일일오후세시경 함흥(咸興)경찰서의고등계는총동원하야 비밀리에 함흥고등보통학교를습격하고 수업중의 학생대여섯명을 검거하는동시에 계속하야 부내에잇는 학생하숙옥을 삿삿치뒤저 학생이십여명을 검거하엿다가 엄중취조중인데 검거내용은극비밀에부침으로 알기어려우나 모처에서 들은바에의하면 전긔검거된학생들이 주모가되여 동맹휴학을피하다가 미연에 발각된것이라고한다 그리고이들 학생외에도정변세명을 검거하엿는데 이는학생사건과는 관계가업고 아마『메이데이』격문사건관계로검거한듯이추측된다

코리아레코-드
鄕土民謠 아리랑 原曲 / 流行歌 秋夕 / 뿌라보! 뿌라보! / 봄노래
民謠 新青春 高歌 山打鈴 아리랑
Corea

京城外國語學院 補缺生徒募集
募集科目 英語、中語、獨語、(各科初中高等)
◎特殺特科(英語數學科、物理化學科(高等及大學受驗準備)) 補缺生受付期日(自五月一日) 但時隨入學 所在 京城府授恩洞百十一番地

民刑事訴訟事件一般法律事務誠實取扱
辯護士 楊潤植
京城府瑞麟洞一二〇番地 電話光化門 二三五九番

洪錫厚診察所眼鏡部
檢眼 無料
主任 書系學
檢眼 洪錫厚博士擔任 京城鍾路靑年會館 電光二二八

大衆盤 콜럼비아 리-갈레코-드
창부打鈴
一八枚十錢 一張一朵紅

月刊 小說書籍 東京市神田區錦町一丁目五 金奉書店

지혜잇다는어리석은사람
스서로 지혜잇는줄로 아는 어떤 방백이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하기 위하야 어떤 우서운 이야기와 우서운 작난 잘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처서 한 막대기를 가저다가 저에게 주며 말하기를『이것을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맛나거든 그에게 주어라』하엿다 그후 몃해를 지나서 방백이 병들어 … 『아니라 영영 오지 못할길을 떠나려한다』하엿다 … 『나는 당신가티 어리석은 사람을 맛나보지 못하엿스니 … 이 막대기를 바드시우』하엿다

外科 X光線
醫學博士 鄭求忠
京城鍾路三丁目十六 (入院室完備) 電話光化門六八五番

Columbia 新民謠 靑春打鈴 / 꽃打鈴 / 高一心 / 姜弘植
콜럼비아特約店 平壤鍾路 常信樂器店 電話一七三二番

金銀特別高價買入
釜山富平町二丁目 吉武金銀店
電話一六四六番 振替釜山五三〇番

精神病科 入院室完備 原病院 院長 原振緖 電光2643

申不出氏作 新作 서울구경 오케-레코-드

中央館 永樂町 電本三〇一五
覆面の怪人 ロドルフ・ウアレンチノ アール・ウキリアム 主演 アメリカン・ピクチユア特作 原作メーリー・プロスエル
あゝ玉杯に花うけて 主題歌テイチク・レコード吹込 由利健次、河川なほみ主演 木村潤子、松屋文人、大井正夫助演
新興キネマ現代劇部超特級作 勤王黨 原作 佐藤紅緑 阪東妻三郎一人二役主演 岡田嘉久也、堀川浪之助、櫻木梅子助演 監督 長尾史錄 脚色 鈴木史郎 錄音 東洋發聲システム 名篇『亂鬪の巷』ヨリ
壹日特別大公開 風靡する六月映畫シーズンに放つ 久方振りに阪妻プロ第一回オール・サウンド版 新興本年度新春特別提供

大正館 櫻井町 本局八〇〇
五月三日より短期特別公開 新鮮清涼かほる五月映畫陣に咲く絶對大衆番組
RKO超特作オールサウンド版 チャーリイチャップリン氏自作自監督主演映畫 裏街の英雄 笑ひと涙の一大喜劇爆笑の巨篇 チヤツプリンが一代の名演技
JOウヅマサ超特作豪華映畫 ウヅマサ創立第一回製作時代映畫 製作並總指揮…池永浩久 勝見庸太郎監督第一回監督 オールトーキー 天下の伊賀越 伊賀の上野に劍豪旗本三十六劍士を對手に劍聖荒木又右衛門の閃閃火花散る痛快伊賀越三十六番斬 早川雪洲特別第一回主演 森英次郎、尾上多見太郎、諸口十九、三田照子、河部五郎、松浦築枝共演
JOウヅマサ超特作オールトーキー 海軍省橫須賀海兵團特別後援 俺は水兵 柳家金語樓特別主演 上田吉二郎、芝ちら共演 海軍軍樂隊特別演奏 軍艦比叡日進… 脚色…如月敏 監督…永富映次郎

서울各幼稚園巡禮 (5)

◇新門內幼稚園

다시 서대문으로향해 새문안유치원(新門內幼稚園)으로 갓습니다。그대로어린기지이지요、한그데에 십여명식심은 배가든것도합습니다。울타리지안는 좁은울타도 그래도 그세가당당하답니다。

사진을박고나니 『카메라』앞에 밥이드러간 저엇들이 급밥이라도보여지는가 궁금하여서 사방으로몰녀드러 와[illegible] 다시 선생님이 [illegible] 그소리나는곳으로 몰녀가는 애기들의 발자최ㅅ소리를 뒤으로남기고 우리는 몰녀나왓습니다。

이유치원은 원아수가 사십명인데 당일출석수는 삼십오명이고 선생님은 리순갑(李順甲)씨 한분이시라고합니다。

◇西大門幼稚園

독립관을 건너다보고서잇는서대문유치원(西大門幼稚園)입니다 문안에 드러서니 벌서『사진박힌다』군호에맛추어 사방으로부터 몰려드러왓습니다 그중에한 [illegible]」하고 따라나[illegible]습니다。

사정을 못가[illegible]도 서대문유치원이라해서 서로정답게 따짓고안즈니 그대로『서대문』이라는 세글자가 두려어낫타낫습니다。

이유치원은 원아가 팔십명인데 당일출석수는 칠십명이고 선생님은 송귀산(宋貴山)노순영(盧順永)두분이시라고합니다(사진、상은)

◇安國幼稚園

비개인 신록의 그늘밋해 안국유치원(安國幼稚園)을 차젓습니다 떠저나오는웃음소리와가티 보[illegible] 도둘고 [illegible]의 배에 태가매 [illegible]습니다。[illegible]생님을 [illegible]해서 손[illegible]을 치면서 원형을 에워싸고 맛침 [illegible]에 내여다노흔『레코드』에서 흘너나오는 『[illegible]』가 그대로의 원무곡(圓舞曲)이엿습니다。순에손을잡고 돌며섯다가 다시 두[illegible]어 무한한[illegible] 헤매엿습니다。그러케 크고 그러케넓게자라나라는원고의 상상입니다。

이유치원은 원아가 륙십팔명인데 당일의 출석수는 사십팔명이라고합니다。선생님은 최정순(崔貞順)、조금자(趙錦子)두분이시라고합니다。

(사진 상 안국중 신문내、하서대문)

家庭

빈마당이잇거든 놀니지말고씁시다

손소짓는채소는정하기도하고 취미도화초만못지안어

지금부터 푸나물장사의 외치는소리가 골목마다들려나옵니다 이러한 푸성귀를 일일히다사서먹는다는것은 여간한돈경제일뿐만아니라、날로먹는것은 채독갓흔것도걱정되위험이 업지안습니다。그럼으로 이러한것은 따로히 예방하는방법도 업지안켓지요마는 그보담도 만약가정에서 좋은빈마당가지신분이 계시면 그뜰을 공연이놀니는것보담은 엇더한 방법으로든지 리용하는것이 조흘뿐만아니라、뜰에 한두둥이를 베혀내서채소를 하는것은 실용적으로만 필요한것이고 그 풍치나 흥미에잇서서도 결코 화원을 만드는데 못하지아니한것입니다。그럼으로 이러한 가정을위해서 몃마듸말슴을 드리겟습니다。지금부터비료를준비해두시는것이 매우적당합니다。

×

그러면 재배(栽培)하기에도제일간단하고 또한 자미나는것으로는『호마도』가지、오이、생취『파세리』등이조흡니다 가지갓흔것면 딸편경부터 서리오는시월까지 『도마도』는 륙월중순경부터 십월경까지 오이는 륙월상순에서 칠월중순까지 먹게됩니다

미러한것들의 모종(苗)을살때 모르는사람은 무엇이든지 큰것만조타고골르는지마는 이것은 실상 잘살어나지도 안코 도한 심을때상하기도쉬운것입니다 그럼으로 모종은 될수잇는대로 큰것을골르지말고 뿌리를 잘보아서 상처가업고 모근(毛根)만흔것을 골르되 도리혀 적고마듸사이에 줄기가짧은것이조흡니다

×

모종심는밧은 해볏이잘쪼이고 통풍(通風)과 배수(排水)가잘되는곳을 하는것이조흡니다。밧헤는미리

거름을주는데

이것은 겨(糠)와유박(油粕)에다가 진흙태운재와 문지가흔것을 석거서 약이주일간두면그것이 썩은뒤에 밧헤뿌려서흙과잘석습니다 모종을옴겨심을때는뿌리를 넘우세게 눌너밧지말고또한보르는사람은 대개심은뒤에물을주는것이나 심상은 물을주지안는것이조흡니다

만약 햇살이 넘우 쨍쨍 하게쏘이는데면 이것은 약간막어주는것이 조흡니다。가지나 오이는 열매가 어지간이 열녀거든 유밧을물에타서 약간주는것도조흡니다。그러나도마도는 비료를주면 나무만 작고커지고 정작

열매는맷지안

는것입니다。그리고도압사귀바로 맛헤나는 싹은전부따버리지안으면역시열매가맷지안습니다。생취와『파세리』는 적은그릇에 흙과모래를반식석거서 씨가부이지 안으리만치 흙으로덥허서넉우말으지안을정도로 물을주는데 입사귀가 두세조각이나거든 한번다른데로 옴겨심고 그다음에니 댓조각이나거든 정식으로 밧헤옴겨심는데 다섯치쯤식 간격을두는것이조흡니다 그리고류산(硫酸)암모니아를 물에타서 두어번주고 유박가튼비료는 요하질지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곳자라나는것

이니 모종을 아주만이준비해두엇다가 나물을 뜨더먹은뒤에는곳새것을심어서 늘 신선한나물을계속해먹는것이 조흡니다。

이러한 한누평의뜰도업는분은 석냥궤나 밀감통가튼데에『로마도』나 생취를심어도조흡니다。

家庭메모

조개고르는법과 오래가게하는법

홍합이나대합조개나、그외 무슨조개든지 껍질이얇은 것은영양이 조치못한것이 되여서 맛이업습니다 껍질이 뚱뚱하게불숙나온 것을골르십시요 조개는가만이노아두면 입을버리는 수가잇는데이런때에 건드려서입을다물지안흐면 죽은것으로아십시요 그러나죽은조개도 입을안버리는 수가잇는데 이것은 소금물에 당거어두거나끌는물에 당거의혀도입은안버립니다

대합조개에는 껍질은문의가선명한것과검고 지저분한것 이잇는데먼저것은모래바다에서 잽힌것이고 나중것은 개흙바다에서잽힌것인데 개흙바닥에서난것이골로맛이업습니다

◇

무슨조개든지、까지안은굴아든지 한번에먹을수업시만이잇거든 보재가롤물에 축여서가지고 마른맛가른데노아두면 일주일가량가고착주지안습니다

少年小說 異域에픠는꼿 (十一)

崔秉和

004230

해성림선수일행과 두분선생님께서 정찬는위협편지를 바라보고 만주국사람의 그비겁한행동을 비웃고 장차 손울나누워 홍수의행방을 차저나갈라고 할바로 그때 해성림선수가 류하고잇는 여관을 차저온 소년한사람이잇섯다。

『해성보통학교선생님들 긴급히 뵈오려왓는데 누구신지요』

이러케 말하는 조선소년은 친착하면서도 잠시도 기다릴수가업는듯한 황망한빗치 그영리하게생긴 얼골에 력력히 나타나고잇섯다。

『네、내가 헤성보통학교 선생입니다』하고 허선생님께서 이러케말슴하시고 명함을 한장꺼내서 그소년에게 주시엿다。

『네!그러십닛가? 저는 아즉 어린사람이라 명함이업습니다。저의일홈은 리룡근(李龍根)이라고 합니다。』

『네!그러세요。이러케 차저주시니 감사합니다』

『명맑신을 다하십니다그령 진작 고국동포를 뵈오려온것이지만 시간이업서서 인제 차저뵈오려왓습니다』

『황번오신지 오래되시엿습닛가?』

『네 저의학친은 신경(新京)게시고 저혼자만 이곳에와잇는데 한이년되엿나이다。』

『네 그러세요』허선생님과 려룡근이라는 소년의대화가 여기까지이르렀을때 룡근소년은 엄끔에 엄숙한태도를 나타내드니

『선생님!제가 선생님을차저뵈오러온것은 긴급히 뵈옵고 상의할일이약이가 잇서서 왓는데요 좀 조용히 뵈옵수가업슬가요』

하고 퍽 미안한듯이 여러선수를 [illegible]보면서 말하엿다。[illegible] 선수들을 [illegible] 즉시 [illegible]너나가고 방안에는 허선생님과 리선생님과 룡근소년 세사람만 남어잇섯다。이소년이 무슨상의할말이 잇서서와나하고 선수들의 가슴속은 뛰놀기시작하엿다。

『저、뭐홍수선수의 행방불명에 대한것인데요』

『네 그러세요』두분선생님께서는 이러케 대답하시고 무슨말이 나올는지 룡근소년의 얼굴만 두려지게 바라보시엿다。

『홍수군은 러시아사람에게 붓들녀 갓습니다。그리고 지금은 송화강……』

『러시아 사람에게요』허선생님께서는 아니놀라실수가업다。만주국사람에게 못들려갓을만 알엇는데 룡근소년은 러시아사람이라는말에 이러케 갑작히 말삼이 나오신것이엿다。룡근소년은 중단되엿든 말을계속하엿다

『송화강 러시아사람의 배에갓처여잇습니다』하고 룡근소년은 홍수가 해방불명이되든 전날밤 자기가 목도한 사실을 자세히 이약이하엿다。이놈남고 이가갈리는 이약이를 다드른 두분선생님께서는 주먹을쥐고 곳뛰여나갈듯이 안저다 이러낫다 하시엿다。

『그러면 즉시 경찰서에 고발하여야 하겟습니다』하고 리선생님께서 말슴하시엿다。

『경찰의힘으로 무사히 될술로 생각하십닛가? 이곳경찰은 미듬만한 경찰이못됩니다。도리혀 일을저질러 노키가쉽고 그러케되면 그때야말로 홍수군의신변이 위험할것이닛간 우리들만알고 우리들의 힘으로 해결하는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면 어떠케 하얏스면 내일대회에 출장하도록 구원하야올수가 잇슬닛가?』하고 허선생님께서 다소 마음을 진정식혀가지고 말삼하시엿다。

『네、감안히계십쇼。이문제는비밀을 직혀야합니다。왜? 그런고하니 이근방에는 로국인들이 숨어서 여관분의 일류일정을 감시하고잇슴니다。그러니깐 선수에게도 알리지마시고 선생님께서만 알고게서야 하겟슴니다。』

누가 엿는지엇는지 몰을 바대보앗다。그곳에는 아무도 업섯다。

룡근소년은 두분선생님을 갓가히오시게하고 나즉한소리로 감안감안히 홍수를 구하야 낼것을 의론하엿다。룡근소년이 무슨말을 하엿는지 알수가업스나 두분선생님의 얼골에는 화기가돌고 [illegible] 각금 백도시는것이엇다 문제는 어려지안케 해결될것이도 보이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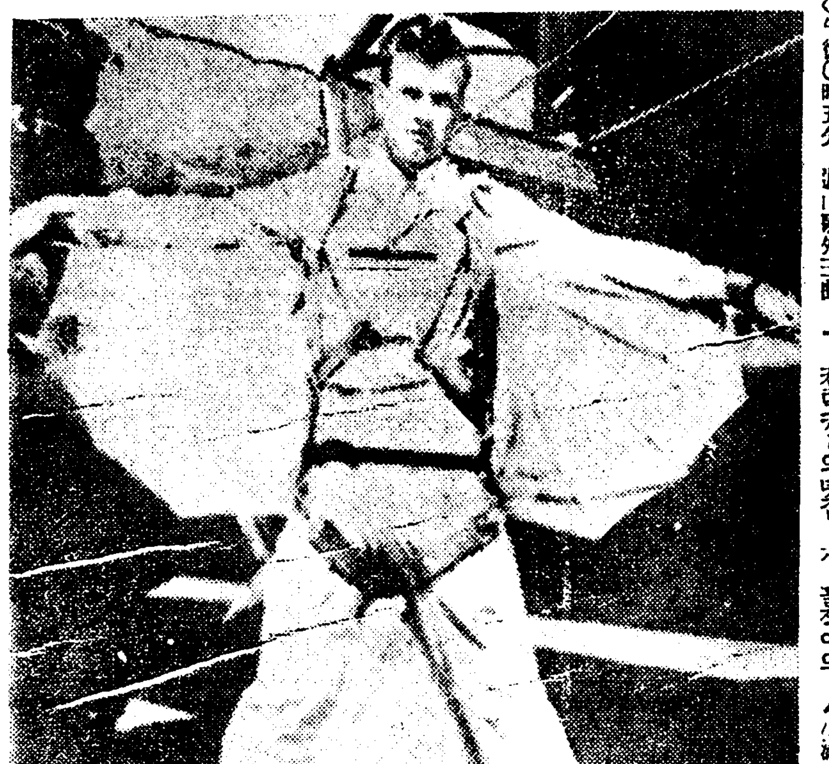
「저는 사실말하면 로국사람이 경영하는 로국집의일아 봅니다 우연히 그곳에 술먹으러온로국사람의 이약이를듯고 그날밤로국사람의 뒤를딸츠것입니다」

두분선생님께서는 이가리 용감하고 총명한소년이 외국인로리집의 뽀이로잇는것이 맛치 도야지우리간에 진주가떠러진것가려 몹시 애석히 생각되엿다。

그리고 필수잇스면 [illegible]로 지도하야 주고밧을 생각도 가지시엿다。

해성림 선수는 가벼운 운동복(運動服)을 입고 두분선생님과함께 자동차를 타고 운동장으로 연습하려가다。그러니 자동차는 큰길로 얼른 선으로가도니 운동장길을 지나서 엽으로꾸부러저간다。그길은 송화강강변으로 가는길이엿다。(계속)

날개를해부치고 공중으로훨훨이



일반으로 비행가를 조인(鳥人)이라고 부릅니다만 사진에보이는사람은 철저한조인노릇을하라듭니다 미국미시간ㅅ주란싱이란곳에사는크렘、손이라는사나이는최근에인공(人工)날개를맨드러부처가지고 새처럼 훨훨날러볼작정을하고잇습니다 원래 그는고도비행가(高度飛行家)로 하늘놉히뜨는재간을 부리는 비행가로서지난번『풀로리다』해안에서는 일만이천척 공중으로뛰어나리는데 이천척은 파라슈-트(落下傘)도업시자기가 맨든날개로 뛰어나렷다합니다

來五月八日 午前十時

第七回 京城幼稚園聯合園遊會

景福宮뒤景武臺에서

參加幼稚園(無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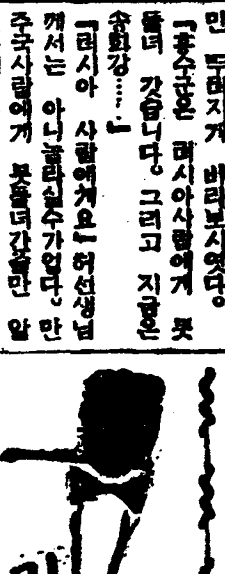
麻浦幼稚園 崇仁幼稚園 安國幼稚園 三光幼稚園 水標幼稚園 甲子幼稚園 茱霞幼稚園 南大門幼稚園 東幕幼稚園 新明幼稚園

桃花幼稚園 宮井幼稚園 明德幼稚園 朝陽幼稚園 崇二幼稚園 養明幼稚園 城北幼稚園 中央幼稚園 槿花幼稚園 孔德里幼稚園

新門內幼稚園 阿峴幼稚園 昌信幼稚園 龍光幼稚園 往十里幼稚園 慈光幼稚園 泰和幼稚園 和光幼稚園 西大門幼稚園 補仁幼稚園

主催 朝鮮日報社

雨天順延



二日(木曜)

◇午後六時 兒童劇 신데렐라 全二景 配役 신데렐라…[illegible] 큰언니…金貞姬 작은언니…朴[illegible] 어머니…姜德子 王…鄭景善 白鳥…趙貞姬 白羊會員

◇同六時二五分 課外講座 地震에對하야 (一) 徽文高普 金道泰

◇同七時三〇分 講 演

◇同八時 講 演

◇同八時三〇分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 (가) 진양조 (나) 중모리 (다) 자진모리 二、倂唱 (가) 短歌 (나) 어화靑春 唱劇調 토끼타령 成錦花 鼓手 池龍九

◇同九時 山念佛外四曲 一、山念佛 二、孔明歌 三、寧邊歌 四、京西巨里 五、朴淵瀑布 白牧丹 柳開東

三日(金曜)

◇午後〇時五分 游山歌外三曲 郭山月 郭明月

◇同二時 新生講座 皮膚의生理 (三) 京城醫專講師 金晟煥

◇同六時 童謠朗讀 一、기려기 二、외나무다리 三、한개두개세개 四、언니의언니 五、저바다 六、번데쟁이 七、먼지 八、달밤 九、종이배 十、챔패꽃 十一、독개비열두형제 十二、욱수수하모니카 十三、빈대떡 十四、짝제기신발 尹石重

◇同六時二五分 課外講座 地震에對하야 (二) 徽文高普 金道泰

◇同七時三〇分 講演 學童愛護에對하야 總督府視學官 張膺震

◇同八時 (東) 管絃樂 交響曲 新世界로부터 드보르작크作曲 日本放送交響樂團

◇同八時五〇分 라듸오·드라마 아버지는아신다 全一景 (配役) 아버지…… 아들(炳鎬)…… 딸(炳淑)…… 炳鎬의妻…… 會社員 朴…… 醫師…… 放送劇協會

四日(土曜)

◇午後六時 기타-獨奏 一、산타-르로스 二、常春 三、매기의追憶 四、꼿과별 五、켄터키-의녯집 六、끌작이의등불 李泰鎔

◇同六時二〇分 兒童讀物朗讀 (新聞)

◇同六時三〇分 課外講座 地震에對하야 (三) 徽文高普 金道泰

◇同七時三〇分 總督府訓示 (全鮮農山漁村振興關係官會) 譯講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竹杖芒鞋 二、唱劇調 沈淸歌 申錦紅 鼓手 丁元俊 田中德太郎

◇同八時三〇分 楚漢歌外四曲 一、愁心歌 二、楚漢歌 三、山念佛 四、寧邊歌 五、夢金浦打鈴 金玉仙 細笛 高載德

◇同九時 쭐루-드와멘돌린合奏 一、(가) 阿牙利舞曲 (나) 자장가 二、(가) 루-레…빠하 作曲 (나) 안단테…하이든作曲 (다) 로-자문데의발레…슈-베-트作曲 三、세레나-데二曲 (가) 세레나-데…토스틔作曲 (나) 同 드리고作曲 쭐루-트 金振鎬 맨돌린合奏 京城맨돌린빤드

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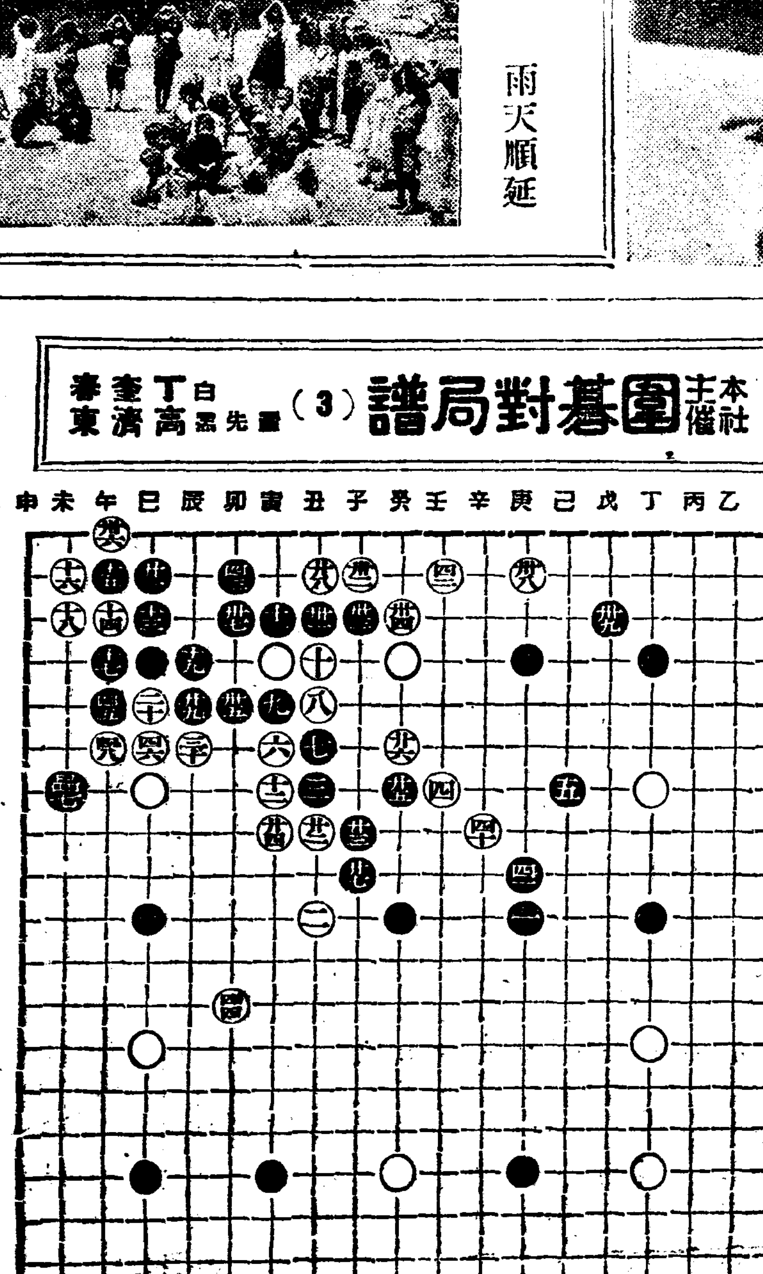
五月三日(金) 四月建辛巳(小)(一日) 己卯·土·亢 閉

▲立夏 六日(陰四月初四日)

▲小滿 二十二日(陰四月二十日)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3)

白 丁萬高 先番 李圭濟 東



【●三三】子의三	【○三四】癸의三	【●三五】卯의五	【○三六】午의一
【●三七】卯의三	【○三八】庚의二	【●三九】戌의三	【○四十】辛의八
【●四一】庚의九	【○四二】壬의二	【●四三】卯의二	【○四四】卯의十二
【●四五】午의五	【○四六】巳의六	【●四七】未의七	【○四八】午의六

秦極文氏評

黑이 寅의四 本番 救出하는데 卯의五로 着함은 聖局것이 아니라 只此已而라 하노라 白이 卯의二로 越路를 着하면 盤着하드래도 黑이 寅의二로 斷하고 卯의三으로 戶口를 置하면 生하고 白이 卯의三으로 破하면 黑이 寅의二로 斷하지라 白이 辰의一로 置하면 捕捉하난 法은 法이나 白 癸의二 未의四에 斷點이 잇슴으로 自然 完生되고 말나 黑의五斷은 참 奇妙하도다

유-모어小說 望夫石 (一)

金熊超 作、畵

三夜四溫 (一)

한솟의밥을먹고 한방에서 잘큰자지만 둘이 말업시 지냇지가 벌서 입ㅅ주일이다。보시부터 잘잣모흔 가렴해야 억지가 뛰어드러 가렴수업는사이、비위틀리는일이잇스면 이가리 한봉안 서로 말안코지내기가일쑤지만 이번처럼 여러날이 견려본 지구전(持久戰)는 업섯다。하나는 웅하고 하나는 앵하는 성미라 제마다 고집이세고 버릴성은잇서서 곳죽어도 먼저입을 버리고 화해를거려봄 은근한생강은 아니하엿든것이다。전가트면 문깐에서 이러노라—소리만나도 제물로 화해가 되고말엇다。

『엇그제 바더간 전긔ㅅ불갑슬 또 바드러왓스니 웬일이야』

리해를 따진다면 한사람의입이아니요 두사람의입이다 비록 뚝명스런 소리일망정

『건넌방 벽에붓흔 령수증을떼다 보여』

—한마듸면 막혓든두사이를 구수-하게 터주엇든것이다。그러나 이번만은 안그러다 해질머리에 재부둥집 아주머니가와서 울게 지너귀에 무당이하든 승내를내여 한참떠들석하기는햇지만 하나는 아푸다는 핑계로 이불을쓰고누어 말한마듸 거들지도안햇섯다。

초저녁에 지어 드려온밥상이 권하는사람이업서 아홉시가되도록 방한가운데 노혀엇다。수까락 든사람이업서 놋주발의 뚜껑은 덥힌대로잇다。숫바닥을긁어 모앗는지 바리주발에 비스드미 칠홉이나 담겨잇는 힌밥도 그냥그대로다 사기 접시에 공손히 올려모신 알룩백이는고기한매에 겻드린 정성이 빠질대로 다빠지고 숭숭속인지 오래엇다

——에라 이제는그만하고 내가 먼저숫칠박게업지 숫자라고 승긔울펴고 드러누어잇기는하지만 뱃속마련은도라가업슬레지

『여바요』

명례는 아랫무을을 향하야입을여럿다 남편에게하는말로는여드레만에처음이다

『인제 그만진지잡수구려』

[illegible] 남편은도라눕도안한다

—그럼넘 아러서!외처 잡거둥이가 돼서 쿨밥 이런날이가엇나! 그리고 사내체여이라 처마다에 허허!하고 이러날수아얏슬러이지 술을북지알고어서 이러나렵때 선선히 이러나요。하고도신혀지만 선울불 터침가보아서 헛것을 반종일리다가 그만마럿다。

『내가 젓스니 이러나요용』

—아차 아니할말을、혓구나 상말로 약을 올리는것가태서이러날것도 못이러나겟네。명례는 얼른 말꼬리를달리부쳣다。

『어디가 정말 편찬으시우……』

여지것말안코지내기를한두번이아니엇지만 남편이오늘 저녁처럼 식음을전폐한적은 업섯다그러다고보면 비축어라 백일것을리업고 아마달리몹이편찬는가보다하고생각도되엿다 그러나맹낭한것은 남자의마음 한끼굶는것쯤을가지고 엄튼병으로속단하기도우수운일이엇다—아니야분명히숭속이야

『아모리 역정이 낫드라도 죽때는두려야지요 하로이틀만살다가 말사이가 아닌데를 이럽작이래서야 되갯서요 어서 이러나요、거처하는시바는인제그만두어도조코、정 더 가리고십거든 먹을껏먹고 우서가며합시다。』

남편은 여전히 토라저잇다。

『내가 그리로 내려가릿까』

이번에는 반 어리광비스듸부드러운목소리로 졸러보앗다。

『……』

여전히 아모런반응이업다。명례는 얄미운생각이드럿다。

『아모리 뱃속이 유한분이기로서니 이런판에 잠드럿슬리업고 남의말을 거저듯기만하고 갑지는안코니 웬셈이요!당신이 셈호리기로 유명한줄은 나도알지만 이런때 쓸거야 업잔허요』

죽은듯차든 남편이 그제서야 간국를 하엿다。그러나 새우능처럼 등을꾸부리고 두무릅을 터모아드린다。또 저 지긋지긋한 녁두리가 나온다 실혀는모양。

명례는 밥상을 웃목으로 밀어노코나서 박그로나가다

—그래얼마나 오래 그리고잇나 좃쿨껌! 하고 혼자종알거리면서 마루끄트로 나섯다 래일모래가 상월인데 아직도겨울이 다안갓는지 날사가 상상하엿다。압가슴을 여미면서 처동회곤의채를 인두꼿호로 헤차고 비니 잘하면 소생할듯도한 끈숫불이어이 추어하는듯이 깜빠하고는 흐려저버린다。

小盆散積 —【四】— 可笑

李殷相

우리中宗朝의人 金正國이란이의 奧寮雜記은 當時士子間에생긴 言語逸話의 一選話를 우리에게 傳해주엇다。

『直學金千齡이란 사람은 己酉에進士하야 壯元試의 三題試에 問首한인데 그가 高句麗의 閣系를 叙述하되 朱蒙이 그 事業을 열고 東明이 그 祖武를 이엇다 云云하며 殷宗한 一文을 지엇더니 그때試官도 또한 그런냥 하엿고 士林도 오늘 秋後외 異議가 업시 그를 傳誦하며 그로되엿을 몰랏다。朱蒙과 東明이 一人이오 二人이 아님을 모두가 모른모양이니 그럴수가 잇을까。』……하고서 思齋는 活眉에 이어 歎하되

『國人, 不詳於本國事類如此, 可笑』

라하엿다。

우리 이제 그逸話를 再吟味하여보자。萬一 金千齡으로 하여금 漢土의 國系를 말하게하엿든들 어떠케 하엿슬꼬。모르거니와 堯舜을 一人으로 論할 金公은 아니어얼것이다。

그러고 또 或이 夫子와 孔丘를 二人으로 말하는자가 잇섯더면 試官이나 士林들로서 아마 네사람은 揶揄嘲笑하고 狂人으로여겨 그입술에 침을 배앗흘것이오, 여섯사람은 怒氣衝天하여 不敬이라 부르지지며 大刑에 處하엿슬것이다。

이逸事를 두고생각하매 우리가 自己民族의文化에對하여 探求하고저하는 熱意와 誠心을 안가진것이 벌서歷史的事實임을알겟다。

自己를 忘棄하고 自己를 輕視한것이 이가치 歷史的繼承인以上, 오늘 우리들의 朝鮮知識이 缺如함것을 무슨말로 論할것이 업거니와 果然 돌아보매 世界의 어느民族者 堯舜을 論하고 제民族의 歷史를 모르는것으로 오히려 자랑을 삼으며 또한 泰然하야 부끄러움이 업는사람으로써 朝鮮사람일을 안다。

毋論 現代에 잇서서는 各人에 各人의 要求하는 專攻이 잇슬것이다。그러나 朝鮮사람인以上에는 東明과 朱蒙을 二人으로 말하는 程度의 沒常識은 벗어나야할것이니 果然 現狀이 어떠한가。옛날 思齋의 입으로 發하엿던 『可笑』의 歎辭를 四百年이지난오늘 다시금 또되푸리헤야 올탄말인가。

良心

일즉 國朝榜目을 뒤지다가 肅宗時의人 姜遂란이의 逸事한가지를 보앗다。

그는 太僕 姜邯贊의後孫으로 일즉이 生員에 中하고 世宗丙辰年 親試에 試驗答案을 完畢하자말자 不幸히 그試券이 바람에날려 가버렷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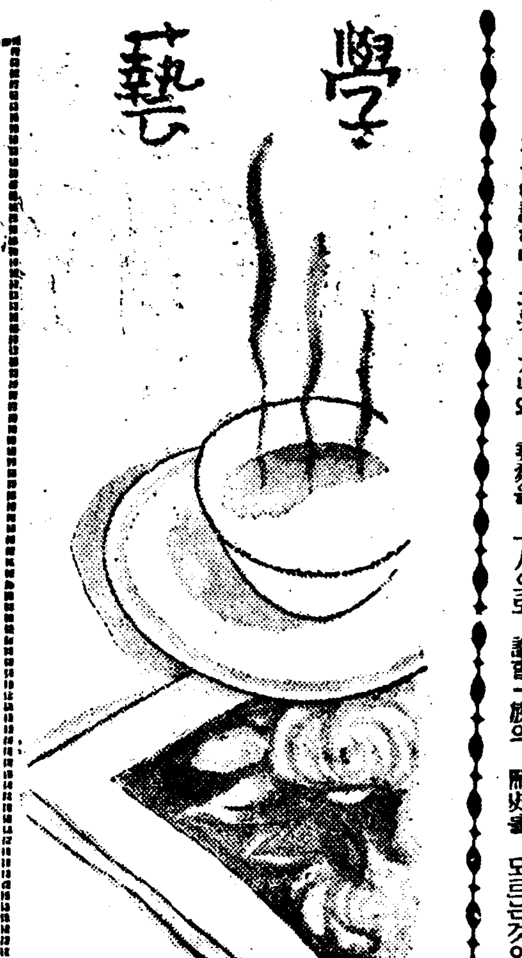
그러하야 畢竟은 尹千이란사람이 그試券을 拾得하야 姓名을 爲하엿다는것이다。

毋論 이러한例가 만흔것은 아니지마는 昨日의 試驗制度가 다른點으로도 非合理的, 非實力的인것은 말할것이 업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科擧制度를 批判하고저함이 아니오 尹公의 良心을 생각하고저 함이다。이러한 良心의 所有者가 往往이 擢名兩榜하는것은 古今에 다잇는일이어니와, 남은 비록 그를모를지라도 自己의 平生을 通하야 自己가 自己를 속인 그罪의 刑罰은 永遠히 바들것이다。

自己만알고 自己만맛는 自己의 刑罰가티 괴로운것은 업스리라。

學藝



自叙傳的作家 토ー마스·만研究 (6)

曺希醇

그러나 世界大戰은 이어코야 그暴威를 거두고야말엇다。그后 그는 外國講演旅行次로 和蘭、瑞西、丁抹을 一九二三年에는海路로 西班牙를 다사 그翌年에는

英國 에를 또 그後二年에는 波蘭을訪問하엿다。그동안에 그의一代의 大傑作『魔山』이 着着 進涉된것은 勿論이다。

『魔山』—이魔山이라는것은 世俗的인惡魔의 意味가아니고, 病과死의 雰圍氣를 支配하고잇는, 妖術的의힘을 象徵하는것이다。卽『魔山』이라는것은 前述한바와 가치, 그가 夫人의 病으로因하야 同伴한瑞西 다볼스附近 海拔一五〇〇米突의 高地에잇는療養院을 가르친이다。眼谷을 無限의彼岸에 向케하는 活躍의世界로부터 完全히切斷된 世界、『平地』의活動과 進步에對해서無爲와 停滯를 象徵하는

神秘 한高地를 가르친이다。平地는生의世界요 療養院은 死의世界다。그種槪를 簡單히본다면 다음과갓다。

한부엇의商人으로서 市政에도 參與한名門의 아들로태여난 主人公 한스、카스톨프는 世上의期待를등지고 自來의傳統과 因襲을 脫棄하고 工業大學을 卒業한後 어떤 造船會社의 見習技師가 되어서 實生活을 經驗하게되엿스나 過度의 研究로健康이 나빠저서 醫師의 勸告로保養을遂해서 이『魔山』으로 從兄弟를 차저오다。勿論

最初 에는 三週間可量의豫定으로 하엿스나 여기온後 그는 이『魔山』을물고찬 妖氣에 完全히 사로잡혀서 精神的업시 겨울을보내고 봄을마즌後다시 크리스마스를맛고 또다시復活祭를 맛게된다。그러는동안 그의病도 漫漫濃化하야 그는生의世界、活動의世界인『平地』와 完全히 絶緣해버린다。그리고病이란것이 時間의價値를 變更하야『時』의槪念을 完全히 根底로부터 轉覆해버린 結果 主人公한스亦是 時의經過를 조금도意識치못하게된다。이러하야 어느界에 住居하는

多種 多樣의人間들에게서 七年이란歲月을 보낸다。

때마츰 大戰의雷鳴이 『魔山』까지 울려왓슬때, 비로소 生이란 우렁찬힘을 잠을깨고 生의世界로 卽『平地』로 戰爭의渦中으로 뛰여나려간다。

이作品亦是 數萬諸作品과가티 그進展에잇서서 變化가적고 小說로서의 通俗的興味가 적으나 永遠히 作者토ー마스·만의 靈魂을 차고도는生과死의 問題가 徹底하게 主人公한스의靈魂속에 刻印되어서 한스가

七年 間의滯在中에『꿈과死』의捕虜가되여 自己自身을 기피 思索하고 바르게認識하야 드듸여새로운『生』으로 發展하는것가티 對立의綜合과 調和에의 토ー마스·만의 努力이 여기서完全히 徹底히 融合完成되엿다는點으로보아서 卽토ー마스·만의靈魂의發展이 이에이르러 完全히綜合되고 調和되엿다는點으로보아서 圓熟期의 그를考察함에必要不可缺한 作品이다。

主人公한스는 다음과가티 말한다。人生에處함에 우리는두가지態度로 가지고잇다。그하나는 通常의直接的 態度요 그둘재는 死를通하야 다시人生에直面하는

態度 이다。前者는 生그自體를 目的으로한人生 卽生活을爲해서 生活하는 살기爲해서 사는態度로 이때에는 生은死에 對立한다。生과死사이에는 劃然한 境界線이잇다。이러한 態度로 人生에處하는者는 死를擬定치안는다。卽生이過去이며 現在이며 또未來인것이다。그의 終局的目的은生이다。그러나 그가人間으로서의 運命을 뭇널때에거기 偶然히나타나는것은 무서운惡魔로서의 死이다。

그러나 第二의態度 卽死를通해서 다시 生에이르는態度는다시두個로 논운다。그하나는 死가

恐怖 로서 나타나며 또하나는 死가 快樂으로서誘惑으로서 나타난다。勿論 이두境遇에도 生과死가 對立함은 事實이다。그러나이때에는 死는必然的으로擬定되여잇는것이다。死는 生의必然的歸結이며 絶對的事實로서나타난다。이와가튼 態度로 人生에處하는사람은 未來에 死를擬視한다。그러나 그에게對해서死가恐怖이때요그는 그것을 理性의힘으로서 征服할수업다。왜냐면 理性은德性이고 死는逸樂인까닭이다。卽前者는强制며

後者 는自由인까닭이다。死는 理性보다强하며、死의압헤는 理性이存在할수업는것이다。이强한 恐怖와 誘惑의死를 克服하고 能히사라가기爲해서는、理性보담도强한 第三者를 必要한다。그것은 卽 愛이다。이것은 人類愛로서 또는 戀愛로서 나타나는것이다

日蝕時의鳥獸

【캠브릿지(마사츄셋츠州)發聯合特信】天變地異時에잇서서 鳥獸는 어떠케갈팡질팡하는가 그러나人間의편이 때뎔벙대는데 지금까지 그리만히研究되여잇지안으나 요즈옥米國마사츄셋츠州藝術科學專門學校의손으로 一九三二年八月三十一日의 日蝕을材料로研究한結果가 發表되엿다。日蝕이天變地異의範疇에 드러가는가 아닌가의問題는차치하고 엇잿든 그報告에依하면 日蝕이시작되는 同時에 지금까지 울지안튼蟋蟀이 울고 鷄雛는塒에도라가고 개는 짓고 其他의鳥獸도 제각기갑갑해지면 모다가태지는데 그대신 晝間을睡眠時間으로하는 梟蝙蝠等은 一時깜작놀라서울기도하고 날러가고 興味잇는것은 마사츄셋츠州의 로ー렌스氏라는집에서는 無數한蟋蟀이무엇때문인지食品室에 야금야금드러와서 어이가업섯다는報告가잇섯다

映畵藝術의構成

그內容과形式問題에對하야

☆……4……☆

朴基采

『無字幕映畵의創造에 努力하여야 明日의 映畵가잇는것이다』라고 말하엿으나 그러나 그에到達하는結論도 結局은 否定的이되고 다음과갓치말하엿다。

『나는映畵가 一般的으로 字幕이 업시는 아니될줄노안다。우리 싸벳트同盟에서는 우리들이映畵에附加하고잇는 巨大한意義에對하야 그眞實한大衆性을 우리同盟에서 映畵가 雙肩에지게되는 偉大한任務를 考慮한다면 이는不可能한일이다。』라고ー。

☆……☆

『쏘을호킨』의 말가운데에도充分히 그意義를알수가잇스나 商業主義映畵가『드라마』의取扱을 아무리하여도 避할수가업는것과 가티 敎化宣傳을 目的으로하는 싸벳트映畵도 또한抽象的思想과觀念을 傳達아니할수업게되는것이다。

『에이젠슈타인』도 發表한自己論文가운데에 抽象的思想과觀念을 視覺的으로 大衆에게 傳達하려고 試驗을 하엿섯다는것을 말하엿다。

『에이젠슈타인』의 映畵에對한 辨證法的構成에 잇서서는 唯一의顯著한 努力일것이나 이提唱도 映畵의實踐에 잇서서는 아무實現도 업섯든것이다。이에잇서서는 結局『포돕흐킨』의다음과가튼指摘이正當하엿다

『이技巧는 映畵觀衆이 그들의 注意가抽象을 鑑賞할때 그作品……』

큰 表現力의形式을 探求하지안흐면 아니될것이다。

去番本報에揭載된 拙文『科學的映畵藝術論』에서도 發聲映畵는 無聲映畵의 藝術的發展形態에不過하다는問題에對하야 몃마듸말하여둔일이잇섯거니와 發聲映畵는 確實히 無聲映畵의 一元的發展形態에不過할것이다

이에 多少의點을 附加하는데 잇서서 미리 말하여둘것은 一元的이라 하드라도 決코 發聲映畵의 技術的發展에依하야 必然的으로 無聲映畵에서 高度의階段을 발바서 나려왓다고 說明된 從來의素朴한 一元論과는 相異되는것이잇다。

이러한 一元論과 比較를하면 映畵의藝術的發展이라는 現象의理論的說明으로서는 도리혀二元論의 傾이 더욱有利하게될는지 모르나 萬一 어려케되면 이二元論은 無聲映畵에서 發聲映畵的發展을 아무리하여도 藝術的으로는 說明할수업게될것이다。

☆

『二元論的說明에잇서서는 藝術의形式的解釋이 結局『싸이렌트』와『토ー킨』其他將來性이잇는 새로운藝術的形式의可能性을 各各의映畵的『잔르』로서, 竝列을하려는 點이잇스나 이래서는 一貫한映畵의 藝術的發展이라는것은 到底히生할수업는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映畵藝術의發展的意匠에依한 새로운可能性의 出現을 統一的으로 理解를하여보기로하자—。

☆

이에 第一問題로되는것은 무엇이 大體映畵藝術의 意義이냐는것이다。이를 詩人의 말로하면『보라ー쥬』의말과가티 그것은 映畵의 精神일것이다。그러면 이映畵의 意義나 精神을構成하는것은 무엇일가—。나는이를考察하야볼때 映畵에 다하는 政治的인經濟的인것의 任務라고 본다。

映畵에 잇서서의 任務에對하야서는 뒤에좀더詳細히 말을하겟스나 이는 具體的으로 映畵가製作되는 經濟的政治的基礎의相違에 그原因이잇는것이며 또 그基礎의推移에依하야 課題의內容도 變化되는것이다。

★

이任務를 다하기爲하야 發展되고 잇는 藝術의內容과形式과는 相互作用으로 混合을 하고 均衡을 得한後에 成立되는것이 間藝術形成의 理想일것이나 그러나 藝術의形式가운데 一定한 限界가잇는以上 그藝術의任務가 强調되면 될사록內容이 重하게되는것이며 結局은內容과形式의 均衡이 破壞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不調和한狀態를 업시할려면 좀더高度의形成力을 要求하게되는것이다。그러면 그形成力의發展은表現手段의 物質性우에樹立되야잇는것이라고말할수잇스나 結局은手段의 物質性의 强化를 엇게되는것이다

☆

이는 우리가 無聲映畵에서 發聲映畵의發展에依하야 볼수잇는 現像이나 이러한意味에서 考察할때 發聲映畵는 映畵의藝術的任務의强化에 依하야 破壞된 內容과形式의調和를 藝術的으로 再次調和식히고잇는것을 말할수잇다

이新調和도 또破壞되는때가잇슬것이나 그러나 이는 單純한 映畵技術의進步가아니라 映畵藝術的任務의强化에依하야 惹起되는것이며 또그任務를 다할機能을 發揮하기때문이아니면 아니될것이다

☆

그러면 이러한境遇엔 立體性과色彩의獲得은 果然映畵의形成力에 무엇을말할수가 잇느냐는 것이다 나는—그것은 自然의完全한 再現을肯信하는 空想에不過할것이라는것을 말할수밧게업다

以上에依하야 內容과形式의發展에對하야서는 어느程度까지의 說明을하엿스나 이問題의藝術社會學的理解에잇서서는 實現이되지못하고마럿다

우리가 恒常映畵는 現代文化의所産일것이며 反映이고 또民衆藝術이라고 말을하게된다 그러나 實際로問題를 考察하야볼때에는 이것가티漠然한것이업다

人間이自由自在로 비를내리게할수잇다

加奈陀一學者가 降雨機를發明

世界의旱魃을殲滅식히겟다

【하리팍스(노바스코치아)發聯合特信】自由自在로 거기다가 安價로비를 오게하는機械가發明되여 目下캐나다 政府에特許를出願하엿다캐나다 東部노바스코치아 半島의하리팍스市의化學者로—손·그리한氏가 이것의發明者로 그는아일랜드·벨파스트의퀸ー스大學의化學敎授엿든바數年前에 退職한以來當市에서 人工的으로비를오게하는研究에沒頭하엿든것이다 이에 그는다음과가티말하엿다

『今番完成한余의發明의根本原理는決코 新奇한것은아니요物理學과化學에關한어떤 有名한學說에基礎를둔것이다 이裝置에보면 구름만잇스면언제든지 틀림업시비를오게하는것이다 그費用도極히적고한번에 二十弗로五十弗이면 되는故로農業者에게非常한福音이될수잇슬것이다 余는目下政府에特許를出願中인바今夏노바스코치아半島上空에서 余의發明이얼마나驚異的인가를證明할터이다 그證明에依하야 以後世界로부터旱魃問題는 그림자를업새게될것이다』

人生은百七十

悲觀말고오래삽시다

모스크와學者가研究發表

【모스크바發聯合特信】최근에 財産도업고 近親도업는 특상한 境遇의사람들을 普通의 養老院에 收容하는 대신에 모스크바에서는 九十歲以上의 老人을자유로 歡迎하고 더구나 될수잇는대로는 天壽를다하게하며 또한 마음 消息이잇다 老人研究所라고하는 듯기에는 조곰 어마어마한일홈을가진 研究所가그것이나 별로히 老人을 動物實驗의 材料로쓰려는것이 아니고 悠悠히長壽를 누리게 시는 高齡者의 日常生活을 仔細히觀察해서 『어더케해서 長壽를하며 또한 그마큼만히 社會에 貢獻할수잇는가』하는 社會上의 大問題를 解決하기爲해서 소베ー트一流의醫學者들이 全部드려서 研究하고잇다。

研究所에는 現在百十三歲의 老人을 筆頭로 百歲以上의 老人數人이 長壽競爭을하고잇는 것은 勿論 偉觀이라고할수잇스나 研究所의 成果에關해서 소베ー트 聯邦아카데미ー會員P·라자레프 敎授는다음과가티 말하엿다。

『人生五十이라고도하고 或은六十이라고도하나 研究所諸員의 研鑽의結果 人間은 百七十歲 或은百八十까지 넉넉히 生存할수잇다는것을 豫定하기에까지 이르럿다 長壽法으로는 目下中樞神經系統을 强靭식히지안는 方法이 研究되어잇다、그러나 長壽를하는데는 遺傳이라는것이 重要한 原因이 되는것으로서 現在研究所에서調査한 結果長壽者의 大部分은 父祖또는 親戚에 亦是長壽者가 잇다는것이다』

短篇小說 初戀 (1)

오올더스·헉슬레이 作

高涓民 譯

휴버트 라벨에게대해서 이첫사랑은 대단히 중대한 염여엿다 이『중대한』이란 말은 그가 일기속에다 이첫사랑에관한것을쓸때에 그자신이 사용한 말이엇다 이첫사랑은 그의 생애의일대사건이엿다 정말로 그의생애에 변동을 이르킨큰 사건이엿다 그의 정신적발전과정에 잇서서 비약호로 한전기(轉機)를 만드런든것이엿다고 그는 늣게엿다

『롤레에른는……』 일기에만 썻슬뿐아니라그것을 다시금 민니에게 보낸편지에도 썻다—『롤레에른는 말하엿다 사랑은 누구나 두번죽는것이니 죽는번은 육체가 죽음과 동시에 죽는것이고 한번은 사랑하는 능력을 일흠과동시에 죽는것이라고 그와가튼의미로 사랑은 두번만 생한다그 두번재의 탄생은 처음으로 사랑을 맛보게될때 그때사람은 새로운 세상에 탄생하는것이다 보담 장엄한감정 보담 놉흔 세계의 가치, 보담 루명하고 철저한 동찰의 세계를향하야 탄생하야 나오는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휴버트는 이 새로운 세상이라는것을 경험하고 다소 실망을 늣겻든것이다。그 보담 강렬한 감정이란것은 의외로 미지근한것이엿다 도저히 문학적표준에까지 도달할수는업섯든것이엿다

크레시다를 사랑하야
내마음 미치고 마럿노라고
내 그대에게 이야기하면
그대는 대답하엿노라
진실로 크레시다는 어엽부다고。
그러나 그대의 대답은 내가
그의 상처에
그의 눈과 머리와 볼과 발거름과말소래와 환한손을 하릴업시 떠부어맏추는것을。……

[譯者註。 쉑스피어作『트로일러스와크레시다』第一幕第一場으로부터의引用詩]

그러타, 확실히 이만하지못하엿다。하기는, 그의 일기와 민니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 새로운 세상의 화려하고 로맨틱한 광경을 만히 그렷다。그러나 그것들은 잘바토르, 로오자[譯者註。伊太利의畫家(一六一三—一六七三)] 류의 복합적상상풍경(複合的想像風景)이엿다。사실보담은 훨신 화려하고 자유자재하고 회화적으로 명암이 만흔 것이엿다。휴버트는, 조고마한 슬픔이나 육체적욕망이나 정신적 동경이 움을 트기만하면, 주관사람이 황조감을 본것처럼 그것들을 뭇드러가며 로맨틱하게 맨드러가지고 그의 일기에나 편지에 썻다。때로는—대개는 밤이 깁허서—나야말로 련애를하는 남성중에서가장열정적이며가장애수적이며 가장 위대한 사나히라고 자기자신을 설복함에성공할수도잇섯다。—그러나 낫이되면 길에 매여달리면서, 그는 련애에대하야 일종의 불쌍을 품고잇섯든것이다。이건 엇재 좀 엉터리수작갓다。그러타, 정말 역시 엉터리수작에틀림업다하고 그는 결정하야버렷다。그러면서도 그는 역시 중대한것이라고 상상 차고잇섯다。

그러나 민니에게는 사랑은 결코 기만(欺瞞)이안이엿다。거진첫순간부터 민니는 그를 련모하엿다。그들에게 공통된 어느 친구가。

探照燈

童謠에對한愚見

라듸오를 通하야 들리는 童謠或은 幼稚園에서부르는 童謠를드를때마다 나는 크게不快한 感情을갓게되다 왜냐하면 그中에는 童心의 純情的發露가업는때문이다 이제그童謠作者를보면 그大部分이 아즉도文章에對한 또 詩에對한 또兒童心理學에對한 아ー모런 研究도업시그저 直興的으로또는 그어떤淺薄한 模倣으로 그童謠를만드러내는少年들이다 그리하야 그童謠에서 우리는그未熟된글句에얼골을 찡기리지안흘수업스며 또兒童의純情的 童心의薰香이업스메 놀래이지안흘수가 업는것이다

그것은 結局한개의 藝術이란 참된情의發露를 形象을通하야表現하는것이니만치 그들作者의力量이 不足한데에 그原因이잇다 할수잇다는것으로 좀더朝鮮의 兒童을研究하는 作家가이에留意하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그曲에잇서서는 좀더이에研究를 싸흔作曲家의 出現을待望치안흘수업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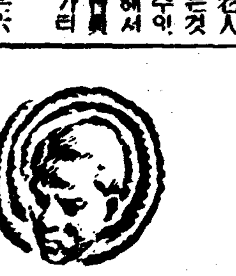
天眞한兒童이 자미잇고 쉽게부를 노래와曲! 이것이 當面의 兒童藝術運動의 喫緊事가 안일가한나 (一步生)

新刊紹介

▲調査月報 四月號 朝鮮總督府發行 定價三十錢 郵稅二錢 一手賣捌所 朝鮮印刷株式會社 振替京城四〇番

▲한글 四月號 京城花洞一二九 朝鮮語學會出版部發行 振替京城一〇三六番 定價七錢

▲新聲 第三十八號 京城慶雲洞八八 天道敎靑年黨本部發行 振替京城一六八二九番 定價三錢



黑風 【21】

韓龍雲 作 金熊超 畵

지주와소작 廿一

『소경이 개천나물하야 무엇하나 돈업는우리가 잘낫이지는논마직이 때려지지 아니한것을 다행으로 악수박거더잇나 다르지일을 걱정하야 쓸데잇나 그만두세』

『소작는 다른사람의것을 마음대로 떼어부치라고 하지마는 그것을 어떠케 떼어부치나우리가 뻔히아는바에 논이떠려지면 다 굶머죽을사람들이아닌가 그러치아니하면 일가친척이나 사돈간이 되는사람들이니 그논들을 떼어부칠수가잇나』

『그러구 말구하거나 그뿐아니라 우리가지금 남의논을 떼어부치면 딸과며누리를 갓다주고서 남의 소작을 빼앗어부친다고 남들이 욕을하지아켓나』

한편적으로 문제를내어서 아모것도모르는 순진한농민을 콩라하야 남의정혼한 처녀를빼앗어 여러째첩을 삼으라는것은 무엇으로보든지 조금도용서할수업는죄악이엇다

신을 거꾸로신고 순보를맛는것은 순보 마누라와 영애엇다 그들은 날마다 기루은 마음과 밤마다 걱정하는생각으로 순보를 기다리다가 순보의 도라옴을보고 얼마나 바가웟지 몰낫든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논을엇지 못하얏스면 엇지하나하는 두려운마음도 바가운마음과 아울너낫든것이다

『평안히 다녀오셧소 대관절논은 엇지되엿소』

하는 순보마누라는 눈으로는 심하고 입으로우스면서 말늘하얏다

『차차 이야기하지』

순보와 한곳은 이러한 이야기를 밧고 차기로 차면서 각각 집으로 도라간는것이다 그들은 이묵이가 잇다는 김흔뭇에 어엽분처녀를 제숙으로드리고 풍년과 태평을비는 아라비아 사람들처럼 하나는 자긔의딸을 하나는 자긔의며누리를포학무도한 왕은석의 음욕의바다에 제물로드리고 굴머죽게되는 아귀도(餓鬼道)의재앙을 면하고저 한것이엇다 그러나 그들은 구차한것을 견대지못하고 은석의압박을 이기지못하야 엇지하는수업시 거의 무의식으로든은석의요구를 드러준것이오 자기들스스로가 간득한마음으로 딸이나 며누리를 파라먹은것은아니엇다 만일 그들로하야금 당한학식과 또렷한판단력이 잇서서 도리에대한 올코그른것과 사물에대한 가벼웁고 무거운것을 스스로 아랏스면 옹렴무도한 은석의요구를 한말로 거절할뿐아니라 준절히 책망이라도하고서 사라나가는길을 다른방면에 구한대도 아니될리가 업는것인대 무식하고 순진한 그들은 소작농이 떠러지면 다른도리가업시 굴머죽는줄로만 랏스므로 부지중에 큰리에 려지고 도덕에 어그러지는 허물을 범한것이엇다

은석으로말하면 그만한 짜문에 잇고 그만한지식은 잇는사람으로 돈잇는놈힘 행문삼고 말할

『차차가 무엇이오 궁금하야 죽겟는대 차차말한다는것을 보니까 틀린모양이오그려』

『논을엇기는 하얏지마는 그대신에 사람을 이러버리게되얏소』

하는 순보는 무엇이라고 말하기어려운 이상한표정으로 대답하얏다

순보마누라는 조금놀나는빗츠로

『사람을 이러버리다니 그게무슨소리오 누구를 이러버린단 말이오』

『우리영애를 이러버리게 되얏소』

『영애를 이러버리다니 그게무슨말이오 그까지논마지기를엇고서 천금가튼 우리영애를 이러버린단말이오 그것은 아니되오 논을못부치고 굴머죽어서 천만년을 아귀가된대도 그것은 아니되오 영애대신에 내가죽는수는 잇서도 영애는아니되오』

하는 순보마누라는 다시 영애를 보면서

『애 이게 무슨소리냐 네가저 거번에 그런말을하얏지 네가저송아지가되야서 너를갓다주고 논을엇더스면 조켓다고 네가웨 그러한 사위스런말을 하얏니 아마그말이 재앙이되얏나부다 저일을엇저니』

하고 딸을붓들고 우르며 눈물이 그렁그렁하다

皮膚病에 꼭발너야할 데ー무水

皮膚病良藥데ー무水가皮膚諸症에가장適當한것은임의定評이엇는바다、떼가바약으로 皮膚病이잇는家庭에皮膚病良藥데ー무水一瓶을다備置하시라。

●殺菌作用 皮膚病으로근질근질가렵던지알흔것은無數한菌類가寄生繁殖하야囊腫하고 그는細菌와다른것이 大氣와人體가 뜻하지안한때에는 데ー무水는人體皮膚에는 조금도刺戟업고 安全無害하면서도適當한 殺菌作用을가지고、病因한菌虫의 殺滅됨으로가렵고 알흔것도낫고、菌虫의 殺滅됨에따라 永年된 皮膚病도普通完治된다。

●消毒作用 菌虫이繁殖된 患部에는 毒素를發生하야 고름이 나오고、皮膚가變質되야 그毒素가自然히血液中에들어가서 全身의健康을 害하는일이 잇스나 데ー무水의消毒作用은毒素를 皮膚面에서分解消滅식히며 毒을體內로들어가게하지안는다。

●收斂作用 데ー무水는 그特有한收斂作用으로 前述과如한殺菌、消毒의 各作用과相俟하야 特히人體性能이自然히가즌 微妙한疾病自癒作用의 活潑敏速한機能의促進과서로綜合되야서 皮膚病治療의目的을 到達하게한다。

特長 쓰리지안코、압흐지안코、보이지안코、냄새안나고、더럽지안흔外에 毒、痛痒을除去하야빨이낫게하니다。

主治効能 ●사면바리 ●음부습진 ●무좀 ●헌어루러지 ●검버섯 ●옴 ●부스럼 ●태독 ●濕氣 ●가려운창 ●痔肛門 ●브르튼데 ●농가증 ●죽은깨 ●부은데 ●面皰 ●여드름 ●벼룩 ●모기 ●갈딱이 ●빈대 ●毒虫 ●刺傷 ●皮膚漏

데ー무水 藥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一圓 二圓 送料內地六錢全國到處藥店에서販賣함 萬一品切時는代金添付로發賣元에注文하시라。卽時送藥함

가짜가만흐니 호ー무水를 指定하시라

發賣元 東京芝區田村町四丁目 電話芝一八七四番 振替東京六〇一〇〇番 東京藥院本店 大阪市赤十字病院前 電話天王寺三五五番 振替大阪五〇八一八番 東京藥院支店

렐나논후미나인

田中醫學博士創製藥으로 毛根部에殺菌、刺戟、營養毛髮成長의各作用을 適當하게하야털을나게하고、脫毛를막고、禿髮病、若年禿頭、薄毛、脫毛等아무조록털이 不足하고、보기실흔분은곳試用하시라。

五十錢、九十錢、一圓六十錢、三圓、全國各藥店에잇슴

●詳細說明書는 前記東京藥院에申込하시면곳送呈함

信川拳銃强盜事件 最高十五年役言渡

被告六名中一名六年이最低 三十日海州法院에서

【海州】 旣報=피스톨을 휴대하고 도당의무리를 휴대하고 소화사년이래 금년일월경까지 재령(載寧) 신천(信川)등지를 횡행하면서 십륙회에 궁하야 강도행위를 감행하고 금년일월상순 자긔일당을 체포코저 신천에서 재령에 향하는 도로 로상에서 경문하든 신천서(信川署)에 근무순사 김동준(金東浚)에게 권총을 발사하야 안면에 중상을 입히는 등 대담무쌍한 행동을 하야 일시 세간에 센세이손을 이르킨 세칭 신천권총강도(信川拳銃强盜)사건의 관계자 재녕군 북률면 내종리(載寧郡北栗面內宗里) 김가형(金嘉瀅)(三一)등 륙명에 대한 언도공판은 지난 사월 삼십일 해주지방법원(海州地方法院) 형사법정에서 석천(石川)재판장 주심과 박(朴) 김(金) 량배석판사와 상량(相良)검사의 립회하에 개정되엿는데 재판장으로부터 다음과 가튼 형의 판결언도가 잇섯다 한다

載寧郡北栗面內宗里 金嘉瀅(三一) 懲役十五年
長淵郡長淵面南□里 朴秉煥(三六) 同 六年
鳳山郡楚臥面細柳里 林忠信(三七) 同 十年
江界郡化京面津坪里 朴貞根(三七) 同 八年
載寧郡載寧面栖花里 蔣秉和(三七) 同 八年
載寧郡載寧面栖花里 洪贊燮(三〇) 同 七年

學年延長問題로 第三次로陳情

【下東】 김해군하동공립보교학년연장긔성회(金海郡下東公普校學年延長期成會)에서는 학년연장운동을 맹렬히 하여왓스나 아직도 당국의인가를엇지못하엿슴으로 지난이십륙일에 긔성회장 김흥배(金興培)씨와 지정위원 정인수(鄭寅洙) 전주현(全柱鉉) 긔찬식(奇贊植) 김희규(金熙圭) 김영득(金永得) 제씨가 상경상도하야 판본학무과장(坂本學務課長)을 방문하고 진정하엿다는데 하로라도속히 추진하기위하야 불원내로 총독부까지 가서 진정할모양이라고한다

不正事實을指摘 總會席의大波瀾

丹城金組總會經過

【丹城】 경남산청군단성면(山淸郡丹城面) 단성금융조합에서는 지난이십일에 제십륙회 정긔총회를 개최한바 원배오륙십명이 참석하야 제십륙기말재산목록、대차대조표 사업보고서 순익금보전법안등에 대하야 송(宋)리사로부터 보고를맛치고 감사의견서 승인의건에 드러가서 감사 권호갑(權湖甲)씨가 감사한결과 사실과틀림이업는것을 인증합니다고 선언하자 신안면총대 김상근(金尙根)씨가 금융조합일부 본보에보도된 부정사실과신지 부정사실의하나인 『전감사인 차동섭씨가 단성면기수로 잇다가 작년봄에 총독부미곡생산비조사원(米…)으로 …에 이주한대도 불구하고 금년봄에 단성에 다니며 온긔에 조합사무를 감사하고 리비와 일당을 바다갓스니 실이것은 조합정관으로 보아서 감사의자격을 상실한사람에게 감사를시키고 려비와일당을 지불하얏스니 부정지출이아니냐』하고 격열한 질문으로 육박하자 조합장 손병국(孫炳國)씨가 답변하기를 그때한참 문은 부외사항이아니니 총회에서 질문할성질이 아니라고하야 언쟁이 열려 총회석은 별안간 수라장화하엿는데 장면(三壯面)총대 리권수(李權洙)씨가 『신문지상에 긔재되어 마침 하사람에게 보도된사실을 총회석상에서 보고를거절하는 리유가무엇이냐』고 육박하자 장내는 다시 … 원의 조소가 련발하게되여 일충은 잘하여 가는차에 련발되는 질문을 어와하고 다음의안건으로 넘어가고 마릿다

의원선거에 드러가서 별안간종지당하야 총대로부터 다시질문이 개시되자 조합장으로부터 선거를 맛치고 답변한다하고 종래답변을 하지안코 폐회를선언함으로 총대와일반조합원은 격분과 불만을품고 도라가게되엿는데 총대 김상근(金尙根)씨는 총회의성질이 무엇인지아지못하고 전조합원을 무시하는것이라하야 조합장、감사、리사등을 배임적행동을 법적으로 고발하라고 준비중이라는바 이로써가 여하히진행되어갈가하야 일반의 주목을끌고잇다한다

法院支廳舍落成

【信川】 경성지방법원신천지청의 신청사는 과반신청사건축에 부당하든중 은긘공청사도 사마자전월에 이원의공비로 락성되여 오는심이일 오후일시부터 동청사에서 정인각 유지와초청으로 성대한락성식을 거행하리라한다

淸原商工協會定總

【淸原】 평북위원상공협회 제일회 정긔총회를 지난사월이십칠일 오후일시에 위원공회당에서 개최하고 회장 박희원(朴熙元)씨 사회하에 경과보고외 산사건토의를 마친후 임원개선결과는 다음과갓다고한다

會長 朴熙元 副會長 金元用
幹事 林仁永 金□□ 吳□□ 李成□
評議 林相甫 辛□ 林□□
會計 李□□

山火를鎭火하다가 住民一名이慘死

─德源郡下에서─

【德源】 지난이십사일오후두시경 덕원군북상면화정리(德源郡北上面禾亭里) 소재국유림에서 출화되여 진화하려 갓든 동리 김현주(金顯周)(三□)는 그만무참히도 소사되엿다한다

選擧界醜態如此

─金組長落選憤풀이로金品授受暴露─ 關係七名利原署에被檢

【遮仙】 지난여성량하날 리원군차선(利原遮仙)에 잇는 군선금융조합(遮仙金融組合)에서는 조합장을 선거하엿는데 총마자상이잇은 그동안 맹렬한운동을하여오든바 동면대평리(東面大坪里) 김하욱(金河郁)씨가 당선되엿는데 이에락선된 총마자 안모(安某)의 친척들이 크게분개하야 유권자중 동면문암리(東面文岩里) 최두섭(崔斗燮) 동면룡암리(東面龍岩里) 최태신(崔泰信)등에게 폭행을가하여 선거장은 일시수라장으로 화하엿스며 그로말미암아 가진선거전선에 숨어잇든 모든추악면과 심지어 금전수수까지 한사실이 세상에드러나게되엿다는데 이것을 탐지한 군선주재소에서는 관계자전부를 구인하야 리원서로 압송하야 취조중이라고 한다

辯護士를中心한 詐欺事件의公判

一年과八個月役求刑

【海州】 旣報=청년변호사로서 상당한사회적지위와 신망을 가지고 잇는 경성부다옥정(京城府茶屋町) 원택연씨를 중심으로 한 윤양구(尹亮求) 박긔양(朴琪陽)등의 사긔에 대한 사긔사건의 제일회공판은 지난 사월삼십일 해주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석천(石川)재판장 주심과 상량(相良)검사의 립회하에 개정되엿는데 상량검사로부터 다음과 가튼 구형이 잇섯다는바 언도공판은 오는십사일이라한다

京城府樓洞九七 尹亮求(四一) (懲役一年)
京城府茶屋町一六九 辯護士 元澤淵(三九) (同八個月)
延白郡鳳西面丁村里四八三 朴琪陽(五二) (同八個月)

寶劍은收用令

土地買收에失敗한長津水電 咸南知事에收用令申請

【咸興】 저수지 매수문제로 륙칠년동안 가진말성을 일으키다가 아직도 칠십필만여평을 매수치못하고 토지수용령적용(土地收用令適用)을 신청하고잇는 장진강수전회사(長津江水電會社)에서는 함자선(咸慈線)이등도로개통공지와 중남(中南)、류담(柳潭)간 하갈、전천간 삼등도로용지매수에 또다시 지주와의 매수교섭이 결렬되여 일할 함남도지사에게 수용령적용을 신청하엿다는데 함자선(咸慈線)이등도로는 분래부터 저수지로될 중남、서한(中南、西閑)량면을 통하고잇는것인데 금년경에는 해지방일대가 저수지로되여 수국화하게되음으로 신한면(新閑面)으로 변경하기로되여 그용지매수에 관계지주들과 수차협의하바 이엿던바 리덕모(李德謨)외 십일명은 절두철미 가격의 차이라던지 가리리류로 매수에 응치안는다는것이며 류담 중남(柳潭、中南) 하갈 전천간의 삼등도로 일만구천이백삼십메돌 용지도 역시 전긔리류와 가리 용지 응치에안는다는것이다

元山稅務署管內 土地分布狀況

【元山】 조선사람의 토지가 년년히 신조되하는 현상으로 이것을 보외래자본가에게 점병되어감은 숨길수업는 엄연한사실이거니와 이제 원산세무서관내인 안변 덕원 원산 문천등각군부내의 면적별토지소유표를보면 무어보다 전긔사실을 여실히증명한다 즉 이백정보이상의 토지소유자로는 일본내지인 한명이 잇슬뿐이고 조선사람은 한사람도업스며 백정보이상 백오십정보미만에 조선사람은 두명이고 일본내지인은 십명이된다 그리고 전체로보아 일정보미만의 토지소유자가 전인원수의 반수를 칠강이된다 이제 그자세한것을 들면 다음과 갓다 (원산세무서 소화구년말현재조사)

	二百町以上	五十町以上百町未滿	廿五町以上五十町未滿	十町以上二十五町未滿	五町以上十町未滿
日本內地人	一人	三人	六人	三五人	一〇人
朝鮮人	—	一四	二九	一〇九	一〇六
外國人	—	一	一	一〇	四
合計	一	一八	三六	一五四	一二〇

	二町五反以上五町未滿	一町以上二町五反未滿	一反以上一町未滿	一反未滿	合計
日本內地人	三人	三三人	三四人	四六人	一七八人
朝鮮人	三四四	六二一五	九七七八	二五四五	三三八六
外國人	八	一四	二	一四	三八
合計	四八二	六六二九	一〇三三	二九七五	二五八三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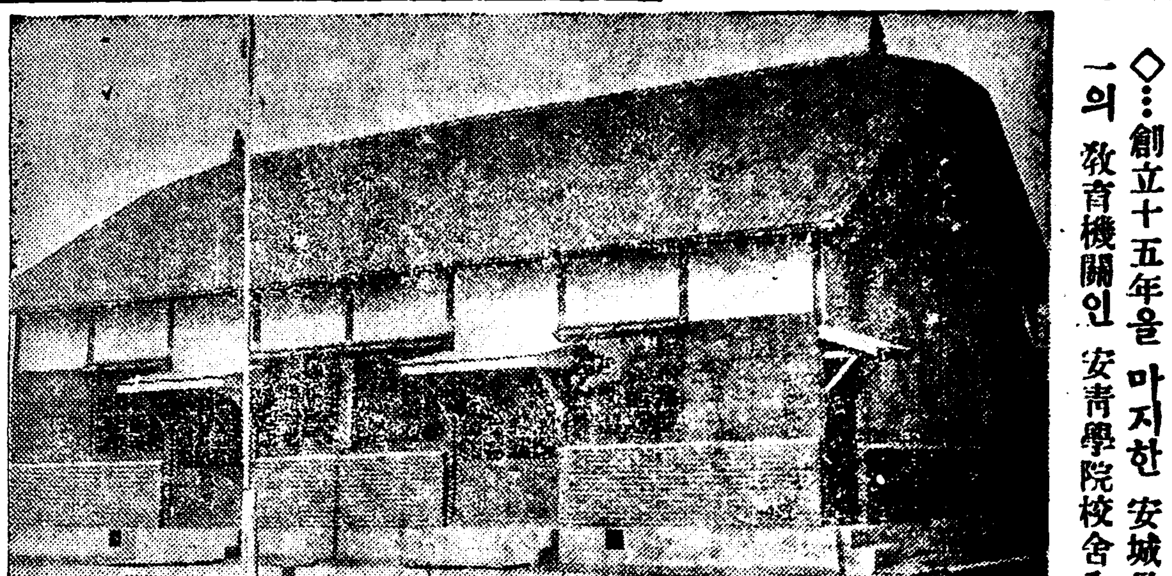
信川天主敎堂全燒

이웃火災에延燒되여 損害는모다二千圓

【信川】 지난이십구일오후팔시경에 신천면동양리(東陽) 류창재(柳昌載)의집변소에서 불이나 맹렬한 풍세로인하야 삼십시간에 류창재집을 전소하고 니어 천주교(天主敎)회당에까지 인화되여 역시전소되엇난대 다행이 인축에는 별로사상이 업섯스나 가장집물은 하나도 끄내지못하고 소진되여 손해는 이천원가량이라고한다

地方人事

▲高漢承氏(開城人蔘同業組合理事) 新任人事次本社開城支局來訪
▲元孝燮氏(文川公醫) 着任人事次本報文川支局來訪
▲裵興敎氏(楊山商會辭事) 慶州古跡探勝次二十六日安岳出發
▲林昌益氏(安岳實業家) 同上
▲劉甫華氏 同上



◇…創立十五年을 마지한 安城邑唯一의 敎育機關인 安靑學院校舍全景

危險한鞦韆! 學生三名이重傷

一名은無慘히死亡

【高敞】 전북고창공립보통학교에서 생도들이 그네를뛰다가 그네대가 잡바지면서 무참히도 생도세명이 주상을당하야 한명은 무참히도 죽은참사——지난이십륙일오전구시오십오분 휴식시간에 생도들이 그네를뛰든중 돌연히 그네대가 잡바지면서 삼명이 중상을 입은중 한명이 더욱위독하야 제삼십일오전 전남광주도립의원에서 무참히도 절명되엿다는바 사망한생도와 중상을입은 도의씨명은 다음과갓다한다

高敞面邑內里 朴南鍾(一三) 第三學年生死亡
高敞面月谷里 任載濟(一〇) 第一學年生重傷
高敞面邑內里 辛鍾順(一二) 第四學年生重傷

生活難悲觀코 六十老人自殺

【文川】 담천군초통에 호구지책이 업슴을 비관코 음독마신후 결항자살한 륙십로인이잇다 동군도초면룡전리(都草面龍田里)에 사는 박영칠(朴永七)(六二)은 지난 이십일 오전열한시경에 약간의술을마신다음 세상을비관하고 자긔집에서 무참히도 결항자살을하엿다고한다

京梨自働車部非難

【梨浦】 경긔도려주군금사면리포리(京畿驪州郡金沙面梨浦里)는 경긔자동차조합원로의 경유지로서 종래에는 경성을 긔점으로 양평려주간의 왕복과 광탄(廣灘)을 긔점으로한 경성행등 심회나 왕행하야 교통상매우 편리하엿섯든데 요사이에와서는 비남회로인하야 승객이 격증함에도 불구하고 경성리포간 양평왕복을 끈는동시에 경성리포간 직통하던것을 광탄천서리(川西里)가지선으로하여가지고 경성양평간 직통차에 련락을시키게 됨으로 승객들은 전에도 천서등지에서 만원임으로 리포정류장에서 차표를 사가지고도 못탄전례가 잇슴에도 불구하고 이가티해서는 리포승객들은 리천까지도 보로가서 긔동차나 다른자동차를 타지안으면안될 형편임으로 일반의 불평이 만타하며 일반유지들은 진정서를 동조합에 제출하는동시에 탄원서도 감독당국에 제출하리라한다

旱魃은依然繼續 凶作을難免狀態

田作은立種도못하는地境으로 鐵山地方人心이恟恟

【車輦館】 평북철산(鐵山)일대에는 봄풀마지한 이래 오늘까지 한방울의 비도오지안이하야 농촌인심은 날로 흉흉하다함은 긔보하엿거니와 지난이십사일이래 비가올듯하여 일반농민은 고대하고잇섯스나 비는 전혀의텁흠도 되지못하게 왓슬뿐으로 그후한발은 의연계속하며 더욱히 근일에는 아침저녁으로 바람이심하야 이대로 몃날만더 계속하면 흉작을 난면이라하야 일반주민는 망지초조중이라고한다

安岳에又復大火

二棟十五間全燒로 損害額一千八百圓

【安岳】 지난이십륙일에 황해도안악(安岳)에서는 삼십년이래의 대화재로 구호전소에 사호가반소되엿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지난이십구일오후십시에 또다시 안악읍룡천리(安岳邑龍泉里) 한□수(韓□洙)의 집에서 발화되여 이웃 김명곤(金明坤)의집까지 태우고 간신히 십이시이십분경에 진화하엿다는데 원인은 방금조사중이고 손해는 약일천팔백원이라한다

全朝鮮自轉車競技

【開城】 긔보=송도자전거선수회에서 오는 오월십일 이량일에 전조선남녀자전거경기대회를 개최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전조선각처에서는 물론 멀리 대판(大阪) 봉천(奉天)에서도 특별신립이 잇서서 개성에서 개최된 자전거경기대회로서는 전례업는 대성황을 일우리라고 예측된다하며 참가지원자는 오월오일까지 개성마월정(滿月町) 광영상회(廣榮商會)로 신입하기를 바란다고한다

谷山에大山火 二百町步燒失

【谷山】 황해도곡산군미면두무리(谷山郡美面杜霧里) 박두산(朴頭山)에서 지난이십삼일 오전구시반경에 돌연발화하야 수목이 울창한 동산림이 백오십여정보를 소진하고 이십사일오후 갑작이 쏘다지는 봄비에 겨우진화되엿는데 발화원인은 방금조사중이라고한다

天安에大火 三戶全燒

【天安】 천안읍성황당(天安邑城隍堂) 안덕삼(安德三)의집에서 사월삼십일오후두시경에 발화하야 맹렬한 봄바람에 불길이 퐁기어 부근삼호를 전소하엿는데 발화의원인과 손해는 조사중이라한다

此所謂九牛一毛格

安東窮民一二三四戶救濟費 每戶當二圓二十錢也

【安東】 재지경북안동군내에는 춘궁기를당하야 궁민이 속출하고잇다함은 루보한바와갓거니와 초근목피로 연명하여가는 이들의 비참한 생활상태는 눈물업시는 못볼정상이다 이제 도당국에서 이들을 구제하기위하야 사월초순부터 군내에 산재한 요구급자를 세밀히 조사한바 일경이 백사십사호로 인구오천팔백구십구명이나 된다는데 그구제비로 매호에 식량비현금 이원이십전식을 지급하기로 하엿다한다

雪!春來不似春

綠陰기튼이때에 白雪消息의亂飛

【川內里】 함남문천군운림면(文川郡雲林面)일대에는 지난이십구일저녁부터 갑작이 긔온이 나려기시작하더니 백설이 오기시작하야 이튼저녁까지 일주야간 계속하야와서 금자그대로 백설이 만건곤하야 때아닌 이풍경을 정하얏다는데 이것은 수십년래에 처음보는일로서 특히 조(粟)에 적지안은 타격을주어 변래의 풍작에 울든 농민들은 벌서부터 흉변의 중조라하야 매우우려하고 잇다고한다

◇

【平康】 지난삼십일 철원과 평강지방에는 눈이나리어 때아닌 설경을 보게되엿는바 긔온이 갑작이 나려여 심한추위가 계속되리라는바 농가에 잇서서 적지안흔 피해가 잇슬가하야 일반농가에서 우려중에 잇다한다

◇

【伊川】 지난삼십일 룡연히 긔온이 저하되야 강원도이천군방장(方丈)판교(板橋)면등지에는 백설이 나려 엄동과갓흔감을주어 화난만한 꼿시절에 때아닌 힌눈과 우박이와서 일반농가에서는 우려를마지안는다고한다

◇

【谷山】 각지에는 경작에 분주중인 이때에 황해도곡산군에는 갑작 발하고 농가에서는 경작에 분망중 때아닌 백설이 다량으로 나려서 …

◇

【長津】 지난이십구일오후부시경부터 의외인 삼십일오전팔시까지 함경남도북 장진군일대에는 때아닌 백설이 다량으로 나리서 이긔후가 변하여 백설이 한자이상 나리엿슴으로 농작에 피해가 다대하다하야 일반농민들은 우려중에 잇다고한다

◇

【北鎭】 평북운산군북진에도 지난삼십일아침부터 정오에이르기까지 모진바람과함께 눈이퍼부어 낫세가 겨울을 련상하리만치 치워지며 아호미령(阿虎美嶺)일대에는 실로 제첨다운 설경을보여주엇다 이곳에는 이미심어노은 종자에는 별로 피해가 업겟스나 교통상으로는 막대한손해가 잇다고한다

江界地方暴風

【滿浦】 강계지방에는 해빙후로 비는 한방울도 오지아니하고 날마다 강한바람만부러 농촌에서는 춘경을 우려하는중 지난달이십팔일에는 오전십일시부터 오후칠시까지 광풍(狂風)이 심이불어 강계군외귀면건하동흥일정미소(江界郡外貴面乾下洞興一精米所) 창고에 벼(籾)삼백석이나 들어잇든 곡간오간(五間)이 허무려저서 손해액이 약일백사십원에 달하엿다는데 강계지방에서 바람이 잇음을 너무드럼이 금년도에 처음이라한다

光州 南朝鮮蹴球大會

▲時日 五月廿五、六、七三日間
▲場所 光州高普球場
◇部門 青年、中學、少年
◇主催 朝鮮日報社光州支局

永川 永川郡民春季大運動會

▲時日 五月十二日午前九時頃
▲場所 朝陽閣前公設運動場
◇主催 體育協會
◇後援 各新聞支局

白川 第十回陸上競技大會

△時日 五月十日午前九時
△場所 白川南山運動場
◇主催 白川靑年會
◇後援 東亞、朝鮮中央、朝鮮三支局

包裝에 리구레ー라고쓰지 안은것슨 眞品이 아니요
咽喉를潤澤케하고 音聲이조지게함으로 歌手나講演者에는업지 못할必携品입니다
口腔을爽快케하고 齒牙를깨끗하게潔白케그려고 健全케합니다。每食後數分間 씹으면消化를助長식힘니다
每食後잇지말고
JP—19

銘酒 誠鶴
……誠鶴……一盃에
五月新綠은 一層아름답다
仁川 深見釀造場

男女秘戲의極致版 (見本目錄卅錢)
○寫眞 珍本一打 四圓 / 珍本一打 八圓
京都市上京區坂倉町 自然社

特許商標
朝鮮特許代理局
京城光化門ビル (電光三〇七三番)
無料相談部特設技師辨理士常住

자신잇게 맨든음식
손님께 부끄럼업시 내노흘 자신잇는음식은 맛잇게하는 그것뿐입니다
맛을잇게하라면 아지노모도를 치면되지오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李王家御用達 味の素本舖 株式會社 鈴木商店
4—U

五月二日부터大公開!!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公開함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名篇 마음의靑空 全九卷
監督ー워리스 럭글스氏
主演ー크라크게블氏 카롤롬바드孃
◇키네마社映畵
西部大活劇 俠血高鳴 全六卷
主演ー아도에코ー도氏
◇大都映畫社作品
現代活劇 나는日本人이다 全六卷
監督 大江秀夫氏
主演 日本□□□ □秀人氏
專屬樂團 電話 三五五番 桃花劇場

○四月二十九日낫부터 每日二回 正午十二時三時半七時半
料金 階上 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階下 大人二十錢 小人十錢
○파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아릭산더홀ー監督
人情活劇 애기를이저바리엿다 도로테아비크 主演
○파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레오마케리監督
喜劇 얼간마음이行進曲 막스 四兄弟 主演
○松竹키네마社超特作 小津安二郎 監督
箱入娘 田中絹代 竹內良一 飯田蝶子
名匠小津監督의心境作品(鐘淵에서불라온第一報)라고하는 近代傑作의明朗篇!!
仁寺洞 電光一五六 朝鮮劇場

經濟解說

重視되는 銀價

그 換算方法內容

④……申泰翊

▲經濟市場(續)…英國은 銀을 産出하는나라가 아니고도 英京의倫敦銀市場은 世界銀價를 左右하고 잇는터이나 米國은 世界第二의銀産國이며또 世界第一의 銀産國인 墨西哥도 實際에잇서는 米國資本에 依한 銀産이만큼 紐育銀市場은 世界銀市場의 重要한地位를 占할만한實力을 가지고잇다그러서 世界銀市場의 第一位가 倫敦 그第二位가紐育으로 되여오지만 將來紐育 銀市場은 倫敦銀市場과 억개를 맛견우고 나아가는 傾向이 顯著할뿐아니라 더구나 前回末端에서 말한바와가티 最近 米國의 銀價高政策이 積極化함을 딸어서 紐育의 經濟이 倫敦의 地位를 壓倒하야 그第一位를 빼앗을것가티도보힌다 그러나 아즉까지는 世界銀價의標準에잇서 倫敦銀價가 그第一位를 保持하고잇다 이것은 왜-그러냐고하면 紐育은 銀을 供給하는 市場임으로 倫敦이 銀의大需要國인 印度와 密接한關係를 맺고잇는것과 가튼 需要의길에잇서 遜色이 잇다는것이 그理由中가장 큰것이라고 생각한다

×

그런데이곳에서 좀 仔細히말하지 안을수가 업는것은 以上에서 말한과가티 紐育銀市場이 倫敦銀市場의 世界第一位를 다토고잇는것은 大體最近이일로 即 지난 歐洲大戰前까지는 紐育市場의銀價는 倫敦市場의銀價를米貨로 換算하야서 發表하는데 不過한때문으로 甚至於 紐育銀價는 倫敦銀價의 隨從이라고까지 못되엿든것이다 그러든것이 歐洲大戰이 생김을 딸어서 米國은 世界的으로 優秀한地位에 올나안게되야 銀價의 標準도 結局에는 倫敦으로부터 紐育을 옮겨지게되고말엇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歐洲大戰으로 米國은 債務國이엇든나라가 債權國의地位로 飛躍케되야 世界金融의中心이 倫敦으로부터 紐育에옴겨가게되고 또는 歐洲一帶의 戰爭으로 銀輸送이 不能케되며 一面으로 米國의手中에 墨西哥外에 南米諸國까지 드러가게되엇다

×

그뿐만 아니라 米國政府는 이機會에 銀塊市場의 中心까지 빼아서 오랴고 一九一八年의「피트만」條例의實施까지 하얏든것이다 그래서 歐洲大戰中에는 紐育市場이 世界銀價의中心으로된 地位에잇게되엇다그러나 歐洲大戰이끗나면서부터 다시 銀價의中心은 紐育으로부터 倫敦으로 옴마가고말엇다 이것은 왜-그랫는가하면 以上에서 말한바와가티 米國은 銀供給國에 不過하고英國과가튼需要國의地位에 잇지못한理由와 英國은 世界大戰後에잇서도國際貿易과 國際金融의中心的地位를 保持케된때문이엇다 그뒤 昭和六年九月二十一日 英國의金本位停止로 그中心은 다시 倫敦에서 紐育으로 옴겨갈것과 가티 보혓스나 米國도 뒤를 딸아서 金輸出禁止를 斷行한때문으로 倫敦은 依然 銀價中心的地位가繼續되여왓다 그러나 昨年에 米國의 銀國有令과 銀價上價로 또다시 銀標準價는 紐育市場으로 옴마갈勢를보히가고잇는것이오늘의實情이다

×

이처럼 世界銀塊의 中心으로되여가는 紐育銀市場은 어떠한內容으로 되여잇는가 하면 紐育에「한데이·엔드·하-맨商會」가 잇는데 이곳에서 날마다 午○에 銀에對한 公定市勢를 發表하고잇다 그建値는 重量一온쓰 品位九百九十九稱度의 銀塊에 對한것으로 元來는 倫敦銀塊價의 入替을 바터가지고 그날의對英爲替로써 換算하고 이곳에서 紐育으로부터 倫敦까지의 銀送費를 빼인것을 買入勢로 發表하엿다 그러나 以上에서 말한바와 가티 紐育市場이 漸次 重要性을 띄여감을 딸어서 그商會에서 發表하는公定市勢는 紐育의 現物實賣價格의 基礎로 될뿐아니라 世界의銀價를 漸次로 支配하는地位로 옴나가고 잇는터이다 (終)

移入木材殺到로 朝鮮木材界異常!

日本內地濫伐로 供給過剩

自給自足目標歸虛?

需要期에入한 朝鮮內木材界는 日本內地杉材의 豫想지안은 殺到로大異變을 招來하야朝鮮內自給自足의 目標인總督府當局도 對策에頭痛中이라한다 即日本內地의 風水害는 民山杉材의伐採를 促進한結果 日本內地에서는 供給過剩이되고 此過剩材는 朝鮮滿洲에向하야 投賣를開始하얏슴으로 朝鮮에서 入荷가俄然激增하야 朝鮮의主要需要地京城에서 入荷는一時二百二十車(約三萬尺締)에達하고 京城驛貨物置場에는 日本內地杉材의 大洪水로 盛況을呈하기에至하얏다 現在도約二百車는 荷積대로잇슴으로 京城木材商組合驛貨物主任及朝運當局은 配給에努力中인데 朝運에서는 今月二十日頃까지에 三百車를增配하야 此滯貨를 一掃하기로되엇다 如斯히 日本內地杉材의 大洪水는京城木材界처음되는 現象으로鴨綠江本流의 春水渴水로 需給關係는 調節되고 市勢는崩落지안코安定되어잇다 右杉材는尺締九圓으로서 約二十七萬圓에 達한것이 京城驛에 滯貨해잇다한다

銀塊流出의 對策

米國銀價高政策의 影響으로

滿洲國은日本에救助를求해

日滿爲替安定策樹立?

【電通東京遞信】滿洲國政府에서는 最近米國의 銀政策强化에關하야同國貨幣制度上에 相當히顯著한影響을 밧고 이미新義州를通하야 流出한 銀塊는 二千萬圓에來할狀態에 잇슴으로 그對策에 關하야 目下 對滿事務局과大藏省에 對하야 日本의援助를求하는데 日本으로서도 日滿經濟提携의 主旨에照하야 不遠滿洲國側과 協議하라고 調査中인바 銀行券間에 一定한 比率을設置할일

一、北鐵買收가 終了치안흔以前에잇서比率設定이 不可能할는지도모르나 日本에 크레딧트를設定할일

一、滿洲國自身으로管理法의 實施를圖할일

一、將來의問題로서 法制的으로國幣와 朝銀券과의統一을圖할일이다 即滿洲國側의 主張에依하면 銀의國外流出은 同國의데풀레숀을 招致하고 墨蕭부터 인興을 政策에基하야 産業의振興을 期待하는 同國産業界에對하야 줄뿐만아니라 오늘까지步調를 가티하라고 努力하여오든上海銀相市勢가 米國銀政策의影響으로 動搖가 생겨國幣의安定을 圖함에잇서 매우支障이생길모양이다 滿洲國으로서는 此際그對策으로 알에와가튼 諸方策에 依하야 貨幣制度의 整備를圖할을 希望한다

一、國幣와朝鮮銀行券과의 [illegible]

倫敦金物取引所

◇……銀取引을開始

【電通倫敦一日發】倫敦金物取引所에서는 卄五年만에 銀의取引을 開始하엿는데市勢는 銀現物三十七片半에서 三十七片十六分十一、二個月先物三十七片四分三에서 三十七片八分七、受渡價格三十七片半을示하엿다

現大洋의 密出旺盛

銀塊高價로

【山海關一日發聯合】最近銀塊의暴騰에伴하야 現大洋도昂騰하고이것을外國에 持出하야 利鞘를보라는 中國密輸業者의活躍은 顯著한바 山海關을거처서 滿洲國에流入하는 現大洋의密輸額은一個月에百萬圓에 達할것으로推定되며 中國側稅關은 目前嚴重히協力하야 嚴重取締한다고

專賣公署官吏

朝鮮駐在許可

◇……滿洲國에서申請

滿洲國政府는 石油專賣制實施에伴하야 今回淸津에 同國專賣公署官吏를 駐在케하기로되어 財政部大臣으로부터 朝鮮總督에게 正式으로 許可를申請하얏는데 總督府로서는 外國官吏의 駐在임으로 目下關係當局에서愼重考慮中이라한다

단市貨幣

平價切下

波蘭과 併行

【알소우一日發聯合】단치히自由市當局은 不遠간 通貨를 三割五分 切下하야 波蘭기로스貨와 同率로하리라고 傳한다

鐵道局用洋灰

併用키로決定

總督府鐵道局昭和十年度局用세멘트百萬袋의 購入은四月上旬來朝鮮小野田세멘트와 日本內地세멘트聯合會十日會京城支部와의 中이든바 朝鮮小野田으로부터八十五萬袋、十日會側으로부터 十五萬袋를 各購入키로決定하얏다한다 局用세멘트는 從來朝鮮産愛用의意味로 小野田의朝鮮産品만使用하얏섯스나 今年은朝鮮小野田의設立과同時에 同會社는 十日會側으로부터 脫退하야 鐵道局에 納入運動을 起한때문에 今年으로부터 一割五分의 日本內地品을 使用키로된것이라한다

北朝鮮의船運賃

◇……獨自率을決定

北朝鮮등 加盟社에서는 南朝鮮方面의 朝鮮米穀運賃改定에 伴하야 北朝鮮穀物 運賃改定關係에 近間協議하기로 되얏는바 今次의改定을 機會로서 從來와如히 南朝鮮의基準에 追隨치안코 北滿特産物의 出廻를 豫想하고 北朝鮮特有의 新運賃을設定키로되엇다한다 夏節運賃決定에伴하야 이것을標準으로 西南朝鮮、九州間及北朝鮮 大阪神戶、裏日本間의穀物運賃을近間에如左히 決定하고五月一日에遡及하야 實施키로되엇는데 從來의運賃보다十三圓引下이라한다

穀物運賃

西南北朝鮮方面

九州阪神間決定

朝郵에서는鮮航同盟會의朝鮮米

西南朝鮮九州間

仁川	博多長崎間	八十圓
同	三角間	八十五圓
同	鹿兒島間	九十圓

但 鎭南浦、群山、木浦、麗山等의賃開는『鮮航同盟會』의賃開에準함

北朝鮮阪神裏日本間

淸津	阪神間	八十圓
同	新潟間	八十圓

但 雄基、城津、元山은右와同 其他寄港地와의賃開는從來대로함

金組機構의 充實을協議

四日財務課長會에서

各道財務課長協議會는 五月四日總督府會議室에서 열리이라고하는데 各種協議事項의 처음되는일로 金融組合機構의 充實을圖하는데 重點을 둔다고하는바그協議事項은 알에와갓다고한다

一、各道金融組合擴張認可方針

二、金融組合金利引下

三、農村振興에 關한金組施設及高利債整理

四、殖産契令에關한事項

更生水組의 聯合會創立

今月下旬頃에實現

總督府當局에서 創立計劃中인更生水利組合聯合會는 水利組合令에基하야 創設準備中이든바今月下旬에는 創立總會開催의 域에達한模樣으로 加盟組合은今次의 水組整理計畫中의 乙種에屬할補給金의 交付를 受하야 今朝鮮二十五組合으로 創立後는 同會가 中心이되어 加盟各組合의 整理更生의 任에當하리라한다

經濟界消息

○朝鮮窯業重役會開催=朝鮮窯業會社에서는 五月六日大阪에서 臨時重役會를 열고 四月末로써 끗난昭和九年度決算과 月末開催豫定의 定期株主總會對策을 附議키로 되엿다고

○小山三井物産支店長赴任=京城三井物産支店長高橋氏의 後任으로 新任된 小山鋼太郞氏는 二日午後三時 京城에着任하엿는데 前任者인 高橋氏는 六月末의 豫定으로 그때까지 京城에잇게되리라고

北滿沿線特産

四月中旬現在高

【新京電話局發】北滿各沿線의四月中旬現在大豆、小麥、在貨數量은알에와갓다 (單位噸)

	大豆	小麥
東支南部線	[illegible]	[illegible]
東支東部線	[illegible]	[illegible]
北滿綏南線	[illegible]	[illegible]
拉濱線	[illegible]	[illegible]
齊克線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今日財界 (二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先限	二七·六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
仁三等米一石	[illegible]	不變
正米(仁川)一叺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融

貸出	[illegible]	[illegible]
預金	[illegible]	[illegible]

◆株 (單位錢)

	今日	比前日
東新	[illegible]	[illegible]
朝新	[illegible]	[illegible]
日産	[illegible]	[illegible]

◆商品

大阪綿糸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紐育現	[illegible]	[illegible]

于先再鍛錬?

昨年六月東新 百五十圓割以來의 經過를보면 約十個月間가진 惡材料를云爲하야 大底에서해매고잇섯스니 비롯內外에 아즉도 不安材料가不無할지라도새삼스러운계 割할것이업스며 株界全體로서도來期來期의不況까지는 이미實質上의 後 이는前途를悲觀키보다는 차라리 大轉換의順序로볼이 妥當하다 보며 軍備、日中提携에 依한國威伸長等을 다시 내세우고 大勢樂觀論이 相當한反面에는今般의暴騰을取하자면 그동안過賣의 反動에不過하얏든것이오 財界實情에異變이업다는것外에 特히新規足買氣를 爆發식힐材料가업스니 以上의昂進은躍期라하야 依然前途에期待를 가지지안는便도잇서 殘弱觀이 區區인데目前一應再次採合으로 鍛錬이고나서新規材料의 出現을보아上下間다시動케되리라는 中庸論이不無하얏다

政變低는買場

急騰의反動에다가 東京硬派의 主力齋藤의 大利喰玉이東京、大阪市場에 나와잇다는것과 政局不安으로賣叩된때문인데 政局은床次、町田對立、機關說問題로一木樞相辭表提出等으로 不安이 再燃하야 岡田內閣危機가傳케하다 그러나 二日은 別로다른消息이 업섯다 一木樞相慰留가 奏効하엿다지 內審會가 그러저러安協될것이나 一木은辭表提出不許하나 果然政變까지 ...

商況欄읽는法

▲期米編 (九)

崔晉夏

◇天井……天井이라는 것은 文字그대로 第一高다는 것을 意味한인데 一年中 가장 높은갑을 大天井(第一天井)이라하고 中間의高은 갑을 中間天井(第二天井)이라 하며 最下天井을 小天井(第三天井)이라고한다

◇底入(소고이리)……底入이라는 것은 第一最低價를 말함인데 此亦 大底入이니 小底入이라고 한다

◇丁과文……丁과 文 이라는것은 日本內地의 古來用語로서 兩文字가 모다 錢과同一한말인데 丁이라는 것은特히 定期取引에만 使用하게되엿스니 即一錢을 一丁이라하고 一圓을 圓丁이라고 한다

◇突破와割破……突破와 割破가모다圓壽를 깨트린다는말인데突破는 市勢가昂騰하야우로圓壽를 깨트릴때의 用語이고割破는市勢가 低落하야 알에로圓壽를 깨트릴때의用語이니 割破는 底破라고도 한다

◇目先(메사기)……此는目前의市勢가 如何히 變動될것을 눈치잇게 잘볼피는것을 意味함인데 이러한 意味의 定期師를 目先師(메사끼시)라고한다

◇機先(기사끼)……機先은即市勢에 어떠한 機微가 보인다는것이라는말이다

◇氣配……氣配라는것은 文字대로 解釋하면 人氣의 支配 또는 人氣의 配當이라 할수잇나니 假令 二十七圓五十錢에 引後의 人氣가 弱하야 二十七圓四十八九錢의 實買가될 氣分이 잇다든지 그의反對로人氣가 强하야 二十七圓五十一二錢의 實買가될 氣分이 잇다는것을 말함이다

◇引締氣配……引締은 止라는 말이니 即 止後의 人氣를 謂함이다

◇好轉과惡化……好轉과 惡化의 用語는 定期取引以外에도 普通使用하나 그러나 定期界에서 適用할에는 好轉은 市勢의 昂騰을 말함이오 惡化는 市勢의 低落을 意味함이다

◇割高와割低……割高는 當地市勢가 他地方보다 다든지 又는定期가 正米보다 比較的高다는것을 謂함이오 割低는 割高의 正反對의 意味의말이다

◇手合(데아이)……手合이란 것은 賣手買手가 서로 合한다는말인데 不手合이라는것은 손이 잘맛지 안는다는 말이다

◇不引合……不引合은 探算이 잘맛지안는다는것을 謂함이다

◇差弗付(자보쓰기)……此는 損害를보다는 말인데 市勢가 떠러질듯하고도 오르고 올를듯하고도 떠러저서 着手할수업게 되는것을『자보쓰기』市勢라고한다

◇突込……突込이라는것은突發的으로 틀어간다는 意味의 말인데 突込賣라고 하는것이 即此를 意味한것이다

◇手仕舞(데지마이)……此語는 賣建又는 買建을하엿다가 轉賣又는 買戾를하야 約 即着手하엿든것을 끈어버인다는말이다 (繼續)

株式 商況 (二日)

採合後에 瓦落

前場鈍重

昨日急暴落된 뒤를 이어今前場도反動落一巡모양으로 少戾氣味이엇스나 引際다시鈍重하야 結局昨後引에比하야 東新六十錢高인 百五十一圓六十錢、日産二十錢低인九十七圓八十錢、大新十錢高인 ... 朝新二十錢高인二十七圓九十錢에 各大引되엇섯다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瓦落

後場도東新百五十一圓二十錢 日産九十八圓六十錢 朝新二十七圓七十錢에軟調寄後賣物이殺到하야 東新百五十圓割의暴落으로 一齊不勢裡大引(引)

實物前場取引

賣買高三百七十枚

▲宇治電[illegible] ▲大同電力新[illegible] ▲鮮滿開拓[illegible] ▲朝鮮郵船[illegible] ▲米倉[illegible] ▲同新[illegible] ▲北鮮製紙[illegible] ▲朝鮮製錬[illegible] ▲北樺太[illegible] ▲鑛業新[illegible]

東京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三、三六五▲一回四分利 九、八六〇▲二回四分利 不申▲佛貨四分利 一八、六三〇

第一期戰終了

新規衝動期待

前月二十三日 東京東新百五十圓落同復以來 形勢好轉하야 底入觀、現實의反動、決算期直面의訂正運動에다가 流布三次貨幣까지 新材料로나와 騰勢에拍車를加하야 今年天井으로 보이든三月八日의 百五十二圓 三十錢까지無難上廻하고 買氣益加하더니大新이 大株新築移轉說買氣分으로猛進되자 東新、日産도 이에追伴하야 前月三十日은 東京當地의 大新이모다 百四十圓大關門을突破하고 昨一日前場은 東京東新百五十六圓十錢 大阪大新百四十錢 東京日産 百二圓九十一錢까지暴騰하엇다가 政局不安을傳하고 齊藤等의 第二大利喰說을機로軟派가賣叩하야 急轉暴落을演한市勢는 今前場은波瀾一巡으로第一期戰終了를思케하얏다 訂正高는昨前場高價로서끗난셈이오急騰의反動도 그만하얏스니이곳에서는다시 精神을가다듬어 新考慮가必要케되리로 政變가는것이잇다던지 新規惡材料의出現이업는限다시 押目買로再進할것이라는 商談이優勢한모양인데强弱間新規衝動을기다리는중이다

市場六感

株

第一期戰終了로 今前場은 採合▲한쓰흘하얏스니 한번쉬는 세음인가?▲東新이 大保合에서 新高値로暴騰되엇던것은 어떠한材料로 이다대로서 짓든點이라던지 大勢樂觀人氣가相當한點이라던지 어대로다 高價로暴騰되어던기운이 壯하엿다 ... 그러치안으나 에컷는것으나 ▲問題는 五月市勢가 波瀾性이만 材料거리가 업섯던것이아니나 興味百%▲區區한 個個의 冷靜히말하면 前月末의上放이나 昨日의急轉反落이나 말하자면 모다이러타큰소리할材料에 因함이아니오 無材料이엇

만즘▲無材料로因한 一波瀾은 지낫스니 이번에는 强弱間 大材料의 出現이잇섯스면 조켓다▲어떠구로도가말하되東新은近一年의大底에서 低迷이엇스니 압흐로强氣를가질수잇스며 百五十圓以下의買玉이百六十圓以上이되어야만 總解上이겟스니 그때에야買方으로서 警戒할때이고 그前은押目買에 危險이업다 斷言果如何?

米

二劑一劑으로農繁期는 닥처온다産地의實物도이로부터 稀薄하게될모양?▲現來保證的實物을 抱擁하엿든定期의 賣方은賣米高를窮하고新界를離脫하야 正米그대로 處分하는光景▲그러고 停滯米의大部分은 精米의原料로吸收되는觀이不無▲그러면이로부터 時日을經할사록 渡米蒐集難도업지안흘것이라고 正米界의情勢는 一轉?▲그러나 賣方으로서는 五月一日殘存米의增加를豫想하고 또六月부터의鑑鮮米의移入을 唯一한弱材로觀測 ▲勿論弱材가 잇는그反面에强材가 또한 업지아니하니 반드시 反落하리라고도 謂키難하거니와 反騰하리라고도 謂키亦難 ▲何如間 市勢는 常分 此處에서 十分鍛錬한後가 아니고는 分岐되지안흘모양가트니찰아리 小擠主義가 得意 ▲本年의次候는 果何如할지植付狀況及靑出如何에 依하야大勢가左右될모양이나 果然雨?

期米 伸悩商情

鈍重

前場保合

昨後場大阪三二十七圓九十八錢에 寄인後 一十一錢止와共히 二十七圓今朝에入하야 阪地初値三十錢二十九錢인 二十七圓九十六錢保合하고 二十七圓給한後 阪地大引三十三錢으로小戾하엿다가 結局二十九錢에 止하야 當時에는 一時新値를 作하엿다가 九十九錢으로 九十六錢을 比較的下在狀로 ...

後場少强

後場은二十八圓丁에二十錢後三、四回○五錢에上伸이잇스나 ...

樂觀의一材와

悲觀의一條

七限見가 强盛한後 바로暴騰의 氣勢를보이다가 依然軟弱에陷하야 二十餘丁의 反落을告하더니 다시 涉商의觀이잇다 果然七限見의 風雲은化를豫測인만큼 强軟兩方의 觀測이區區不一하다 軟派는日減殺期인 五月에入하엿슴에도依然實勢의 壓迫을加할뿐아니라 五月一日의 現在殘存米는過去三月二日現在의如히 樂觀을呈하기가 十常八九일것이며 又는五月을 經한後六月에 入하는때도蒐集第一期米의移入이旺盛하야다시實勢의威脅을맛게되리라고하며 硬派는日時日이갈사록農繁期에 接近할것임으로 産地의實物은全혀杜絶될것이오또는一時豊作의樂觀을呈하든 蒐集第一期米는 其後招熱病으로하야 도리혀凶作說이擴頒한속그移入의 數量이壓迫을加하게까지에至하지는 안흘것이다 그럼으로 今後의品貨로渡米蒐集도容易치못하리라고 또한主唱을하다果如何?

三月一日現在殘存高 四千六百四十八萬七千三十二石은 昨年又는 代食의關係로 比較的增加될것이엿슴으로 五月一日의 殘存米도 도로혀代食의餘地이 업지아니하야 又後眞相을못하리라하며 一方으로는 昨年産米의實收高 五千百餘萬石은 凶作地도서의 減收의 影響으로 其實은 五千四百萬石程度이잇슴으로 三月一日의在米가案外의 多數를不見할것이다 그러한데 五月一日의 殘存米는 三月一日現在比例의 增加를 하지못하리라고한다 果然何方의 觀測이 適中할지는 볼모이나大體는 一個月消費高五百萬石으로假定하고 二個月消費高一千萬石을 差引한三千萬石으로 보는것이 安當할것이다果如何?

朝取期米取組高

◆賣方 ◆買方

	當限	中限	先限
賣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買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軟化 産地出廻薄으로 이에迷하야 氣配十錢軟化인丸仁三等二十七圓四十五錢四等二十七圓十五錢一等白米二十圓丁

仁川小弛 定期의 頭重模樣으로 日本內地入往도 不合意傍觀이며 産地와의取引도 一段으로不捗하야 精米側의物色買가散見되는程度이며 氣配小弛商狀인 丸仁三等二十七圓四十五錢 四等二十七圓二十五錢 一等白米十一圓六十七錢

釜山底堅 市場出廻三千叺 産地越月의 好轉豫想으로 賣腰가 强硬하고 期待하던實行의不立으로取引이不進捗하얏고 僅히當用必需買로 氣配는賣物薄으로 十錢高인丸三等二十八圓十錢 四等二十七圓 ... 一等白米十一圓六十七錢

大邱强調 先期의 不動堅調 ... 一等白米十一圓

南浦閑況 新穀出廻期의 決 ... 買方이 全然傍觀的態度이오 取引은全然안되어閑況商狀으로推移되어 氣配는前日과 丸三等二十八圓丁 四等二十七圓八十錢 一等白米十一圓四十錢

五一殘米豫想

觀測區區不一

不遠한時日에 發表될五月一日現在日本內地殘存米는 如何한數字를示하게될지 一般의觀測이區區不一하다 一方의說에依하면 去 ...

金融 二日

◆海外經濟◆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米穀 二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二日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치카고期麥◆ [illegible]

◆綿油冲價◆ [illegible]

◆錫搾粕冲價◆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商品 二日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期米 二日

◆朝取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鮮內各地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株式 二日

◆朝取短期◆ [illegible]

◆實定代引日步◆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小林幹三商店

株式 京城府本町三丁目 明治町

仁川期米 康益夏商店 仁川·海岸町

京城株式 金益證券株式會社 京城·黃金町